TOGETHER DAY 세계인의 날

제16회 세계인의 날

미담사례집

공감과 존중,
하나되는 대한민국

세계인의 날이란

'세계인의 날'은 다양한 문화교류를 통해 재한외국인과 국민이 서로를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입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19조-

What is Together Day?

Together Day is an official commemorative day designated to help created a Korea society where each and every one of us living in Korea seeks to respect and live in harmony with one another through diverse cultural exchan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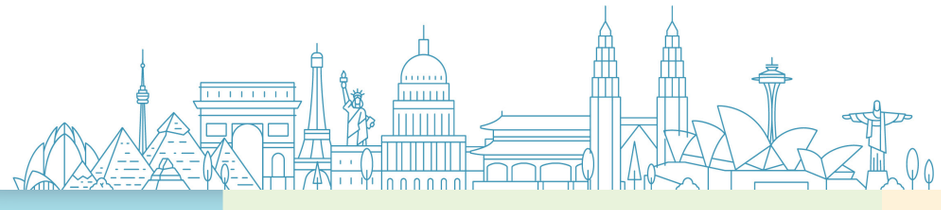
-Article 19 of the 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in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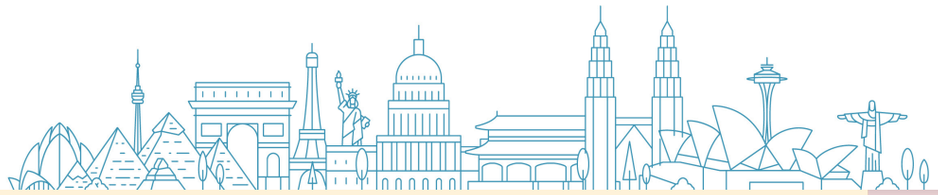
제16회 세계인의 날

TOGETHER DAY

CONTENTS

1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한국 생활	8
2	한국에서 배운 봉사하는 삶	20
3	도움이 필요한 누구에게나 차별없이 따뜻한 손길을	26
4	그림으로 소통하는 고려인의 후예	30
5	꿈을 이뤄가고 있는 엄마	36
6	“꿈은 이루어진다.”	42
7	새로운 꿈을 향하여!	50
8	나와 우리가족의 한국생활 성장기 (광주서구가족센터 고맙습니다)	56
9	봉사의 마음을 알게 해준 승식 형	64
10	한국에서 만난 특별한 인연	70
11	검정고시부터 영화감독까지 열혈 한국어 사랑	76
12	부산을 제2고향으로 여긴 부산명예시민의 삶	82
13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 덕분입니다!	88
14	봉사는 사람을 아름답게 한다.	94
15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다	100
16	나는 미스사이공, 전티마이	104
17	전쟁도 제 꿈을 꺾을 수는 없어요	108
18	정리수납의 달인이 되어 이웃에 봉사하러 나아갑니다.	114
19	이주여성의 한국어 수업을 통한 성공적인 한국사회 정착기	120
20	축제 :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소중한 날들	124
21	내 손을 거치면 모든 게 해결돼요	130
22	언어 천재 ‘이웃집 소하기’	136
23	감자의 배면과 씨눈 중에 어떤 면이 하늘을 보는 것이 옳을까? “꿈은 이루어진다.”	144
24	한 아이 이야기	152
25	응웬민응옥씨의 한국유학생활 적응기	160
26	우리에게 기회가 늘 찾아 온다	166
27	한국에서 만난 새로운 나! 엄마는 힘차게 달린다!!	174
28	자국민 한국 생활 적응 도우미	180
29	한국 사람은 저의 ‘이웃사촌’입니다	186
30	한국에서의 다양한 경험	194
31	계절근로자 문제는 제게 맡겨 주세요	200
32	한국에서 행복을 누리자	204
33	우리 아이들이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208
34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어요! 자원봉사 어렵지 않아요.	214
35	꽃 피는 봄이 오길	220
36	내가 사랑한 일	228
37	베트남계 한국인 김태희! 이제는 다문화가족센터 사례관리사	234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한국 생활

최 소 정

국 적 대한민국

원국적 베트남

2011년 초에 남편을 만나고 결혼하여 10월에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온 첫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10월이면 그저 쌀쌀한 가을 날씨지만 더운 나라에서 온 저에게는 추운 날씨였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와서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부모님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 어머니는 저에게 50달러와 금반지, 금목걸이를 주시면서 "가서 행복하게 살아라, 만약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이 돈과 금으로 먹을 것과 머물 수 있는 곳을 찾아라. 이제 엄마가 옆에 없어서 모든 것을 너 혼자 결정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소리 내어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속으로 '엄마, 걱정하지마. 잘 살 거야.'라고 약속했습니다. 차에서 어머니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창밖을 보았습니다. 불빛이 반짝거리고 차도 많고 베트남에서는 볼 수 없었던 야경이었습니다.

불빛들을 보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부모님도 옆에 안 계시고 무슨 일이든지 혼자 해야 한다. 혼자 힘으로 한국에 적응하려면 먼저 의사소통이 돼야 한다. 한국문화도 잘 알아야 하고 행복도 스스로 찾아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온 지 일주일 정도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어서 남편한테 말을 했지만 우리는 서로 소통이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답답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사전을 검색해서 저에게 '기다리다'라는 단어를 보여줬습니다.

2018년 세계의 날 행사 참여

그렇게 기다리기를 한 달, 남편은 그날 출근도 하지 않고 저에게 여권을 챙기라고 하면서 공부하러 가자고 했습니다. '공부'라는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았습니다. 드디어 공부하러 가는구나! 신났습니다.

제가 처음 참여한 수업은 결혼이민자를 위한 'Happy Start'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날 수업 시간에 베트남어를 통역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을 보면서 저는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나중에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꼭 그분처럼 통역하는 일을 할 거라고 마음먹었습니다.

첫 수업을 통해 저는 비자를 연장하는 방법과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등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며칠 뒤에 외국인등록증을 만들기 위해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갔는데 거기에도 저 같은 외국인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을 보면서도 저는 너무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나도 나중에 이분들처럼 꼭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루는 제 손윗동서가 공부하러 가자고 전화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일단 따라갔습니다. 손윗동서가 데려간 곳은 한대앞역 근처에 있는 한국어 교육센터였습니다. 한국어 공부에 대해서 문의했을 때 한 선생님은 지금은 수업이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풀이 죽어 돌아서려는 순간 갑자기 구세주처럼 한국어 선생님 한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곤 저에게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으냐고 물으시면서 오늘 한번 들어와서 공부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이 황금 같은 기회를 저는 놓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첫 한국어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문화와 한국요리도 배웠습니다. 그렇게 한국어도 배우고 한국문화도 알아가니 한국에서 살맛이 났습니다. 2012년 첫 임신을 했음에도 계속 공부하고 싶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아파도 쉬지 않고 배웠습니다. 임신 7개월째, 몸은 무거웠지만, 스스로 성장해야겠다는 생각에 ITQ 한글 자격증도 취득했습니다.

한국 생활에 점차 익숙해지면서,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빨리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직업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은 자주 했습니다.

하지만 출산 후 공부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그 시절 한국어 선생님이 직접 집으로 방문해서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덕분에 한국어를 계속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한국어를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한국 생활이 어떤지 아이를 키우는 데 힘든 점은 있는지 등을 계속 묻고 살펴주었습니다. 강의 중에도 아이가 울면 아이를 안아 달래 주었습니다. 아이가 이유식을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옆에서 많이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며 아이를 돌봤습니다. 저한테 너무 든든한 평생 잊을 수 없는 은인 중의 한 분입니다. 덕분에 외롭지 않은 한국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4살이 될 무렵, 이제는 정말 한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일자리를 찾던 중, 한국어 선생님께서 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에서 '한국어 보조강사'를 모집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Happy Start' 프로그램'에서 통역했던 베트남 분을 떠올리며 지원했습니다. 과연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를 걱정하는 제게 선생님은 누구보다 잘할 것이라고 격려해주셨습니다.

나를 믿고 수업을 따라와 준 것처럼 지금의 내 말을 믿으라는 말도 덧붙이셨습니다. '그래 선생님이 믿어주는 나를 나 자신도 믿고 해보자.'

크게 심호흡을 하고 저는 과감히 일을 시작했습니다. 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 직원분들도 한국어 선생님처럼 친절하게 여러 가지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베트남어 상담·통번역 일할 때

출입국봉사 모습: 민원서류 작성 안내

전화할 때와 받을 때, 민원이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을 세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나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메모도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의 격려와 도움으로 순조롭게 한국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처음에 느꼈던 두려움과 달리 막상 일을 하면서는 신이 났습니다. 보람도 있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들을 보면 4년 전의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공부하고 싶은데 어디서 할 수 있는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를 몰라 헤매던 제 모습을 닮아 있었습니다.

이 일이 너무 좋아서 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봉사활동으로 계속 일했습니다. 그렇게

봉사하는 동안 센터에서 베트남어 강사를 찾는다는 공고가 났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남을 가르쳐 본 적이 없는 저는 또다시 두려움과 걱정에 시달렸지만 지원해보라고 격려해 준 선생님의 응원 덕분에 저는 다시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들 대상으로 베트남어와 베트남 문화를 가르쳐 줘야 한다는 생각에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저를 존중해주시고 수업에 열심히 참여해 주는 분들을 보면서 열심히 강의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베트남어 강사로서 제2의 삶은 그렇게 2년간 이어졌고 나중에는 다른 센터에서도 강의할 수 있었습니다.

강의를 해보니 저한테 강사라는 직업은 꽤 잘 맞았습니다. 저는 수업할 때 행복한 기운이 몸 안에 차오르는 기쁨을 느낍니다. 어떻게 재미있는 수업을 만들까 고민하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저의 모습이 통한 것인지 학생들도 수업을 재미있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중언어 수업: 쉬는 시간

이중언어 수업: 학생들의 모습

이런 선순환의 과정이 반복되면서 보람과 행복도 점점 자라났습니다. 한국에 와서 한국말도 모르고 모든 것이 낯설어 긴장과 걱정만 가득했던 처음과 달리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꽉 차올랐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믿고 응원하고 돕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온몸으로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한국 생활에 익숙해질수록 마음에서는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 저는 대학 진학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이들이 어렸고 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현실은 쉽게 결심할 수 없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민 과정을 함께 했던 선배 언니는 사이버대학이라는 것을 제게 알려주었습니다. 저처럼 일이나 육아와 학업을 병행하려는 사람들에게 딱 맞는 과정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다시 환한 빛이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고심 끝에 저는 저의 꿈과 가장 닿아 있다고 생각한 사회복지로 전공을 정하고 가족과 여러 동료, 선배들의 도움을 받아 사이버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다니면서 과제물이 있을 때, 시험공부를 할 때, 컴퓨터 시스템을 잘 모를 때 모두 함께 일하는 동료와 선배, 선생님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에서 함께 일했던 사회통합프로그램 담당 선생님 추천으로 '한국어 교원 2급' 및 '다문화 사회전문가'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도 부전공으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한 외국인주민센터의 베트남어 상담 및 번역가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하면서 베트남공동체도 관리하게 되고 문화체험이나 다문화 이해 교육, 김치나눔 등의 센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운영진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질수록 더 재미있고 행복해졌습니다. 힘들고 속상한 일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보람이 더 컸기 때문에 힘든 것도 좋은 경험이라고 여기며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셋째를 출산하면서 저는 잠시 하던 모든 일을 멈추어야 했습니다. 세 아이를 돌보면서 제가 원하는 시간에만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곳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보내놓고 나면 무언가 허전했고 남편 혼자 외벌이를 하는 것도 아이 셋을 생각하면 걱정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2021년 저는 외국인 주민 지원본부에서 다시 일하게 되었습니다. 평일에는 일을 하고, 주말에는 평생학습관에서 다문화학습관리사 과정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과 더 가까워지는 일이기 때문에 몸은 힘들지만 행복한 마음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 후 관산중학교에서 이주민 아동과 중도입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글 지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중언어강사로도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로 인해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고 즐거운 제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 기운을 전달해 주고 싶다는 생각에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만나는 베트남 친구들을 볼 때마다 12년 전 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한국에 와서 12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저는 한국 생활이 행복합니다. 무엇보다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좋았고, 도전하고 최선을 다하며 책임감 있게 해나가는 제 모습이 좋았습니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다시 힘을 내게 해줄 가족이 생겨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들과 함께 웃으며 살아갈 겁니다. 한국의 옛말에 '소문만복래'라는 말이 있지요? 웃는 사람에게 복이 온다니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웃음으로 복을 가져오다니 웃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웃음으로 긍정적 마음으로 다 헤쳐나갈 수 있을 겁니다.

12년 전 딸을 시집보내면서 걱정이 한가득이었던 엄마는 이제 딸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런 걱정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 시간을 헛되지 않게 만들어 온 제 자신을 한 번쯤은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한 번은 큰 아이가 친구를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친구한테 "우리 엄마는 대학생이야, 베트남어 선생님이야."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집에 놀러 왔을 때 제가 집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공부하고 있으면 "우리 엄마, 공부하고 있으니까 시끄럽게 하면 안 되니까, 밖에 나가서 놀자"라고 하며 나갔습니다. 기특한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아이들에게 자랑스런 엄마라는 것이 더 없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것 하나로 모든 어려움은 치유되는 것 같습니다.

저의 행복한 한국 생활은 제가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나갈 수 있게 도와준 많은 선생님들과 동료들, 선배들 덕분인 것 같습니다. 평생 함께 웃으며 사는 것이 가장 큰 보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리사랑을 하듯 저처럼 한국 사회에 발 딛고 살아가려는 외국인들에게

제가 도움을 줄 차례입니다. 저의 노력과 경험이 그들과 만나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 것을 생각하며 오늘도 기쁜 하루를 맞습니다.

제16회 세계인의 날
TOGETHER DAY

한국에서 배운

봉사하는 삶

KYAR NYO THWE

국 적 미얀마

2015년 어머니가 지병으로 돌아가신 후 외동딸이었던 저는 영어를 공부하며 회사에 취직해 아버지와 함께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면서도 생전 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던 '배움'에 대해서 더욱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이런 제 생각을 알고 계시던 아버지는 제 배움에 대한 갈망을 이어가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동안 관심이 있던 사회복지 분야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을 알아보았으나 미얀마에서는 관련된 학교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한국의 경기대학교(수원캠퍼스)에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되어 2019년부터 한국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1년 동안 경기대학교에서 한국어 공부를 하고 한국어능력시험에서 4급을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그동안 마음 속에 품어온 사회복지학 공부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던 제게, 국제교육사무실에서 근무하시던 선생님이 "우리 학교(경기대)에서 행정·사회복지학을 전공으로 공부할 수 있다"고 말씀해주셔서 바로 공부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미얀마에서 간접적으로 접했던 한국과 실제 한국 생활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인상은 뭐든 '빨리빨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 크게 신경 쓰이지 않지만, 처음 겪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지'하고 많이 고민했습니다. 지금은 저도 모르게 '빨리빨리'를 실천하게 되어, 가끔 미얀마에서 온 친구들을 보면 약간의 답답함까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국 생활에서 가장 놀란 부분은 밤 늦은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거리를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흔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놀라웠으며, 가장 부러운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에 대한 생각 또한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며 많은 한국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었고, 제가 받았던 부분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실천하고 싶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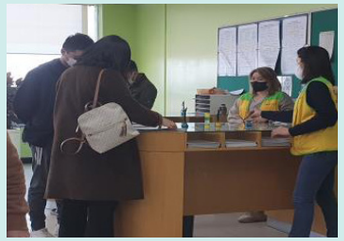
2019년에 제가 한국에 온 후, 그해 말에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며 미얀마로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외국인들이 본국에 가지 못하게 되었고 외국인들도 한국에서 코로나 백신접종을 받아야 했습니다. 우연히 '백신접종 통역 인력'을 찾는 것을 보고 바로 자원하여 영어와 미얀마어 통역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일회성으로 하는 통역도 있었으나 따로 전화로 통역이 필요한 경우에도 백신을 예약하는 방법 등을 알려주고, 직접 가고자 하는 경우 동행하며 통역을 해 주었습니다.

수원시 코로나19 백신 통역 당시 사진

코로나로 인해 거의 2년 동안 미얀마에 가지 못하고 있던 중, 또 한 번 큰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얀마에서 시민들이 투표하여 이뤄놓은 정부를 군대가 쿠데타를 일으켜 많은 미얀마 사람들이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고향에 가지 못하게 된 저는 너무나 큰 슬픔에 빠졌고, 특히 아버지가 보내주시던 생활비를 못 받게 되자 더욱 힘든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너무 괴로운 나날을 보내게 되었을 때, 지자체에서 미얀마 사람들에게 주는 생활비장학금을 받게 되었고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거나 가게에 갔을 때도 제가 미얀마 사람인 것을 알 때마다 힘내라고, 잘 해결될 거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에게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재정착 난민 멘토분들과 함께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자원봉사 사진

제가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처럼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았습니다. 우연히 지인의 통역을 위해 안산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갔을 때 자원봉사자 모집 포스터를 보고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지 문의해보니, 다행히 미얀마인 봉사자가 별로 없어서 바로 봉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를 할 수 있어 너무 기뻤습니다.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벌어지고 난민들이 발생하자 감사하게도 한국에서도 따뜻하게 우리 미얀마인들을 받아 주었습니다.

저는 안산 출입국에서 미얀마 난민 관련하여 멘토를 뽑는다는 포스터를 보자마자 바로 또 자원하였고 다행히 선발되어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한 지 약 4년. 그동안 생각지도 못한 많은 일이 발생하여 힘들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언제나 따뜻한 한국의 도움으로 헤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올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복지학 관련하여 취업을 준비 중입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만 지냈지만 이제 저도 다른 이민자 친구들 그리고 한국에서 제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16회 세계인의 날
TOGETHER DAY

도움이 필요한 누구에게나
차별없이 따뜻한 손길을

김 홍 순

국 적 대한민국

작성자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2021년 4월, 불법체류 중이던 중국인 근로자 류 씨가 청주시 청원구 소재 거주지 옥상에서 떨어져 큰 부상을 입고 충북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된 후 응급수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심각했던 류 씨의 상태가 호전되어 다행히 2021년 6월 말에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주한 중국대사관에 류 씨의 본국 가족 연락처를 확보하고 여권 발급을 신청하는 등 류 씨의 본국 귀환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청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이민통합센터는 중국인 류 씨가 국내에 연고가 전혀 없고 소지금도 없을 뿐 아니라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였기 때문에 스스로 출국 준비를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여 전국의 쉼터나 외국인 인권센터를 수소문해 보았지만 도움을 받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인 류 씨의 안타까운 소식을 알게 된 김홍순 청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사회통합위원이 한줄기 빛처럼 흔쾌히 도움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감사패 수여

중국인 류 씨는 그해 7월 21일부터 9월 1일까지 김홍순 위원의 자택에서 김 위원의 극진한 보살핌 속에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김홍순 위원과 청주출입국 사회통합협의회 사회통합자원봉사 위원들은 중국인 류 씨가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출국 비용 전액을 지원하였습니다.

기념 사진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지원으로 중국인 류 씨는 그해 9월에 무사히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 특히 김홍순 위원은 불법체류자 신분이기 때문에 도움을 받기 힘들었던 중국인 류 씨가 본국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40여 일간 숙식을 제공하는 등 따뜻한 정을 베풀고 도움의 손길을 펼쳐주었습니다.

청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이면 신분과 상관없이 물심양면으로 돕는 인류애를 보여준 김홍순 위원에게 2021년 9월 16일 감사패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림으로 소통하는

고려인의 후예

최미카엘
TSOI MYKHAILO

국 적 우크라이나

저는 배를 만드는 우크라이나의 도시 니콜라예프시에서 2003년에 태어난 최미카엘입니다. 우크라이나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4세대 고려인으로서 한국과 유사한 문화를 배우며 자랐습니다. 저는 러시아어와 우크라이나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현재는 한국어에 집중하여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7년에 부모님을 따라 한국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고려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고민이 있었는데, 막상 한국에서도 저와 조금 다른 한국인들의 외모와 언어로 정체성 고민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나와 비슷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도움을 주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민족의 전통문화에 관심이 많은 최미카엘

저는 어릴 때부터 '전통'에 관심이 많아서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와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중학교에서의 다문화 교육, 또 예술고등학교의 여러 선생님들 덕분에 Pop Art를 알게 되었고, 캘리그라피, 일러스트, 도자기 공예, 인두화, 3D펜 작업, 라이트 아트 등을 체험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생활할 때 할머니들께서 만든 한국의 자수공예를 접하게 되었는데, 강렬한 동양의 매력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저의 뿌리인 한국의 문화에 대하여 더 깊이 알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한국에 와서 한국화를 전공으로 선택하여 배우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캘리그라피를 배우는 과정에서 서예와 수묵화의 매력을 알게 되어 한국화에 대한 관심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술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에도 자연스럽게 한국화 전공을 선택하였고, 미술로 나의 이야기를 표현할 수 있는 수업들에 참여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지식과 기능을 익히게 되었고, 예술에 대한 저의 열정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개인전 관련

고등학교 3년 동안 그린 그림을 모아 청주시 청년문화창작소 "느티"에서 2022년에 첫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처음 열어보는 개인 전시회였기 때문에 걱정과 설렘이 동시에 있었는데,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 전시장 대관부터 디스플레이, 오프닝, 작품철수 등의 과정을 순조롭게 진행하여 만족스러운 전시회가 되었습니다. 쉬운 과정은 아니었지만 뿌듯한 경험이었고 앞으로도 작품활동을 열심히 하여 전시회를 열어 대중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일들을 해나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잊혀져 가는 '고려인'을 한국과 연결짓는 다리 역할을 하는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꿈을 이룬다는 것이 힘들 수도 있지만 최선을 다하여 꿈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작년에 '첫 탐험 프로젝트 최미카엘 개인전'(2022.8.11.~2022.8. 20.)이라는 개인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전시회에 친구들, 고려인들,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수님들, 교인들 등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주셔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다양한 작품들로 전시를 구성하였는데 예상치 못한 큰 축하를 받았습니다. 고려인 선조의 한을 그림으로 공유하고 싶다는 저의 이야기가 인터넷 기사를 통해 한국과 러시아에 전해졌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응원을 받은 것입니다. 마음이 담긴 그림을 표현하려고 노력했는데 이 부분이 다행히도 사람들에게 공감이 된 것 같아 행복한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그림으로 저의 이야기를 펼쳐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전 관련

올해는 '기억의 간격'이라는 그룹전(2023.2.7.~2023.2.28.)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전시회의 목표는 고려인의 역사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전시회 개최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전시회 참여 기회를 주려고 개최하였습니다.

이러한 전시회 개최 등의 활동은 제 꿈을 이루기 위한 나름의 방식으로, 한국에서 생활한 지 약 5년째인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꿈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저에게 청주는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가족의 생활 근거지이자 제2의 고향인 청주에서 대학교에 입학하여 예술가의 꿈을 계속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대학 생활은 저에게 새로운 환경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제 지식과 시야를 넓혀주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과 한국인 등 여러 친구들도 폭넓게 만나 교류하며 세계를 보는 다양한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제 전공인 미술에 투영하여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작품을 제작하고 싶습니다.

현재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청소년을 위한 흥미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혼자 진행하기는 어려운 것은 전국에 있는 다문화 관련 청년회, 협회, 재단, 모임 등과 함께 협동해서 외국인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의 미술적인 재능을 활용하여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청소년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활동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청소년들과 다양한 활동

청소년들과 다양한 활동

꿈을 이뤄가고 있는 엄마

SANJAADORJ
BYAMBATSEREN

국 적 몽골

적응기

저는 몽고에서 2004년에 지금 남편과 결혼하기로 결심하고 아들과 함께 한국에 왔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잘 통하지 않고 생소한 문화 차이로 외롭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6개월 만에 어머니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시고, 한국 생활은 일련의 고통으로 나날이 힘들어져만 갔습니다.

남편은 매우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저를 다독이고 응원해주었습니다. 남편의 어린 자녀들도 저를 잘 따라 주는 것에 힘입어 저는 금세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를 빨리 배워야 했으나, 어린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남편과 저는 먼저 일터로 향해야 했기에 한국어를 익히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다정한 남편 그리고 저를 친엄마 이상으로 따라주는 아이들과 함께 하루하루 한국어를 배우는 재미로 가족이 더욱더 돈독해질 수 있었습니다.

취미

저의 어머니의 직업은 요리사였습니다. 어머니 영향으로 평소 요리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한국에 와서도 몽골 음식만 고집하지 않았고,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한국 요리를 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제 요리를 어린 새가 부리를 쫙쫙 벌리며 받아먹듯이 잘 먹는 아이들을 보며 한국요리에 좀 더 관심이 생겼고 요리하는 걸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제 음식을 잘 먹는 아이들이 어찌나 예쁘던지...

부평다문화센터에서 요리 봉사

한국요리에 대한 제 관심은 아이들이 잘 먹는 요리에서 더 나아가 한국 요리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외국인 요리경연 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감 있게 참가하여 수상까지 했는데, 참 한국생활이 너무 재밌고 신이 나더라구요!

봉사활동

저는 우연한 기회로 하게 된 부평 다문화 센터에서의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현재 10년째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을 돕고, 나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많은 사람을 보면 정말 보람차고 재미있어 인천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자원봉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원접수 신청서 작성만 도와주어도 감사해하는 민원인들에게 뿌듯함을 느낍니다. 또 그러한 과정에서 생기는 인연이 재미있고 소중하여 제 생활의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도움을 주는 기쁨이라는 게 아마도 이런 것 일 거에요.

인천 출입국·외국인청 자원봉사

저는 한국에서 한국어도 영어도 전혀 구사하지 못하는 민원인의 눈빛만 봐도 어떠한 상황인지 눈짓과 몸짓으로 이해하려 합니다. 그들의 난처한 상황을 제가 해결해주었다는 만족감에 오늘도 저는 행복해집니다.

다문화가정 어머님들께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19년 살면서 느낀 건, 하고 싶은 일과 배우고 싶은 일이 있다면 여성이란 이유,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에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민통합지원센터, 다문화가족센터, 주민지원센터 등 주변의 많은 기관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한국은 우리 이민자의 정착지원을 위해 항시 대기 중입니다. 마음만 먹는다면 모든 길은 열려 있고, 배움을 원한다면 지금 바로 움직이세요.

한국어를 빨리 배우는 것은 한국 정착 방법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도움을 받고 또 도움을 주는 일을 하다보면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자녀들과 지내는 데에도 훨씬 수월해져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전 확신합니다.

봉사활동 관련 사진

제16회 세계인의 날
TOGETHER DAY

"꿈은 이루어진다."

리안티안눈
LIAN THIAN NUN

국 적 미얀마

성장과정

제가 8세 정도일 때 미얀마에서 말레이시아로 이주하였습니다. 당시 집도 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을 하다보니 항상 어머니와 다툼을 거듭하던 아버지가 도망가고 엄마 지인 집에 얹혀살면서 매일 눈물을 흘리며 지냈었던 기억이 납니다. 난민캠프에서 제공되는 학교는 6학년까지 밖에 없어서 졸업 후 14세부터 교회 성경학교에 다니며 미용실, 한국식당, 사운드엔지니어등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지내다 나처럼 교육을 그리워 할 다른 아이들을 위해 일하면서도 조금씩 시간을 내어 교회에 오는 어린 친구들에게 가르쳐주는 봉사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이주

우리 가족은 한국으로 갈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두렵고 불안하기보다는 기대감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저는 꿈이라는 게 상상만 할 수 있는 줄 알았지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홀로 가정을 책임지는 어머니 아래에서 3남매로 자라며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공부를 잘 했던 누나도 저도 13세때 학교를 그만둘 수 밖에 없었고 계속 이렇게 힘든 삶을 살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을 안고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엄마와 저희 누나는 저와 제 동생이 대학까진 아니더라도 고등학교는 꼭 졸업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곤 하셨는데 마치 하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저희 가족은 2019년에 한국에 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하고 우리 가족은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임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곳에서 우리는 한국어, 한국사회, 문화, 음식 등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학교생활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나온 후 김포에 정착하게 되었고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로 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해갈 무렵 저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학업을 따라가기조차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엄마를 보면서 '그냥 다 포기하자', '죽고 싶다'라는 우울감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막상 들 때마다 우리 반 아이들이 같이 모여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제게 다시 설명해주고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영어로 번역도 해주는 등 저를 다시 다독여 주고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대학 도전

시작하게 된 배경

고등학교 2학년이 된 저는 컴퓨터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컴퓨터를 전공으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제가 대학에 갈 수 없을 것이라며 제 이야기를 그냥 웃어넘기곤 하였지요.

대학을 가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고 비싼 학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대학입학을 엄두도 못내고 있을 무렵, 어느 날 천사처럼 나타난 미얀마재정착난민 멘토인 고명진 선생님을 알게 되었고 그분을 통해 다시 꿈을 꾸고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고명진 선생님은 같은 학교 친구인 민우(재정착난민)의 멘토선생님이었는데 저도 도와주실거라고 민우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다른 이들과 다르게 제가 컴퓨터 공부를 좋아하는 것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해당과목 기술자격증과 한국어자격을 취득하면 대학을 갈 수 있다는 방법까지 알아봐주셨습니다.

하지만 대학입학 준비가 너무 늦어져 제가 힘들 수도 있다며 걱정하셨는데, 저는 길만 있다면 뭐든 끝까지 해낼 수 있다는 제 각오를 보여드렸고 선생님께서 도와주신다면 해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대학입학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2 대학입시준비

저는 학교와 김포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한국어 4급과정을 이수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에서는 요구하는 '국가가 인정하는 언어자격'인 토픽점수를 위해 시험을 치른 결과, 토픽 점수가 요건에 달하지 못해 좌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 다시 힘을 내었고 고명진 선생님께 끝까지 해볼테니 저를 포기하지 말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저는 다시 토픽점수를 취득하기 위해 주중에는 학교 끝나고, 주말에는 고명진 선생님 상담센터에 가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 결과 컴퓨터응용기술자격증도 취득했고 토픽 4급까지 합격하여 무사히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수업 중에 원서접수가 시작되는 토픽원서접수부터 고명진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야 가능한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접수가 빨리 끝나버린 회차는 천안에 가서 시험을 본 적도 있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때마다 함께 해주시는 고명진 선생님과 친구들의 도움 덕분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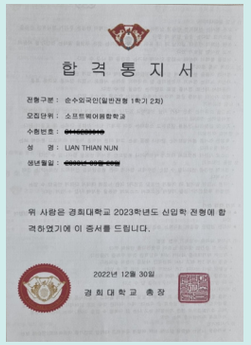
주문도 여행

고명진 선생님께서는 한국어도 함께 공부해 주시고 주문도라는 섬에서 배타고 여행도 시켜주셨습니다. 그곳에서 물놀이도 함께하고 꽃게도 잡으며 다시 기운을 얻게 도와주셨습니다. 특히 대학 캠퍼스와 대학 생활에 대해서 매일 설명해주셔서 대학을 가고 싶은 마음이 더욱 부풀어 올라 대학입시를 포기하지 않았던 거 같습니다.

3 대학교 선택

한국어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컴퓨터 언어에 관심이 생겼고 공부를 하면서 더 흥미가 생겨 컴퓨터 학과를 선택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소프트웨어학과에서 특히 산업보안과 관련된 전문성을 익혀서 저와 가족 또는 같은 처지에 있는 외국인 난민 등 여러사람들에게 유익한 사람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대학교 5개정도를 선택해 인터넷을 통해 대학교 입시전형을 명진선생님께 물어가며 찾아보았고 경희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 소프트웨어학과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은 날 얼마나 기뻤던지... 저를 위해 항상 걱정하고 지지해오던 누나 그리고 고명진 선생님에게 이 기쁨을 전하였고 최종 난민인정자 재학생에게 장학금 100% 조건이 있는 경희대학교에 현재 입학하여 다니고 있습니다.

인천출입국, 사회통합협의회에서 대학 장학금 수여



대학합격통지서

마무리

명진선생님은 지난 시간을 생각해 보면 눈물이 날 정도로 제가 대견하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제가 꿈을 이루게 된 것은 우선 대한민국에 올 수 있는 행운이 있어서이고 저의 노력과 저를 위해 함께 해주신 고명진 선생님, 누나 그리고 친구들 덕분입니다. 특히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과 사회통합협의회에서도 제가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장학금을 주셔서 꿈에 그리던 경희대학교에 입학하여 저의 꿈을 위해 다시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지금의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리고 저와 비슷한 처지로 한국에 오는 난민친구들이나 후배들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살며 봉사를 통해 꿈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16회 세계인의 날
TOGETHER DAY

새로운 꿈을 향하여!

르엉프억한
LUONG PHUOC HANH

국 적 베트남

2022년은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한 해입니다. 한국에 온 지 6년 만에 경제적 홀로서기에 성공하고, 도움을 받던 처지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광주남구가족센터에 차렵이불 30채 후원

2022년 8월 광주남구가족센터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에 등록하고 그동안 사느라 바빠서 하지 못했던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추석이 되었습니다. 센터에서는 추석을 맞아 다문화 가족들에게 명절 선물을 나눠줬습니다. 문득 나도 이제 받기만 할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센터에 있는 베트남 통번역선생님을 통해서 작은 정성이지만 차렵이불 30채를 후원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센터장님과 선생님들은 깜짝 놀라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현금 50만원을 기부해 그 돈으로 구입한 쌀이 다문화가족 뿐만 아니라 일반 한국인들에게도 전해지는 것을 보면서 마음 한편이 뿌듯해졌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의 고단했던 생활이 머릿속을 스치면서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도와주었던 그 모든 사람들과 한국 친구들이 생각났습니다.

2016년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문화와 언어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만난 남편은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고 술을 지나치게 많이 마시는 사람이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나라에서 믿고 기댈 사람은 남편밖에 없었는데 남편은 내게 언덕이 되어주기보다 막다른 절벽이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가장 큰 문제는 소통이 안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술을 마셔야만 했던 이유를 물어볼 수도 없었고 나의 힘든 이야기를 남편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갈등은 점점 더 깊어졌고 그 절정은 아들의 탄생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결혼하고 2년 동안은 임신과 출산으로 한국어 공부도 하지 못한 채 집에서만 지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 하나 없이 나 홀로 육아를 하는 것이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생활비는 부족하고 힘들어하던 남편은 정신을 잃을 때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남편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부부 상담을 받아보기도 했지만 생활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출산 3개월 만에 아들만이라도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2018년 이혼을 하고 저는 한부모 가장이 되었습니다. 비록 이혼이라는 슬픈 단어로 남편과 헤어졌지만 남편은 내 아이의 아빠이자 내가 이 낯선 땅에서 친절한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준 고마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연말에 센터에 기부한 돈으로 구입한 쌀
(다문화가정 및 일반한국인가정에도 전달됨)

이혼하고 처음 두 달은 아이와 함께 쉼터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임시 거처라 오래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마침 화순에서 닭 가게를 하는 베트남 출신 사장님이 아르바이트 직원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면 먹고 자는 것이 해결되고 적은 돈이라도 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주위 분들의 도움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생활비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꽉 막힌 것 같았던 제 삶에 희망의 빛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이라는 것은 나라에서 최저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는 도움이라고 들었습니다. 먼 나라에서 시집온 사람에게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도와주는 한국이 눈물 나게 고마웠습니다. 생활비를

지원받는 동안, 닭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한 돈은 최대한 저축했습니다. 저는 그때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지금 비록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로 나라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언젠가는 내 아들에게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엄마가 되겠다.'고. 2년 동안 저는 아들과 함께 닭가게 창고 안에 있는 작은 방에서 자고 먹으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몸집이 작은 제가 아들 아이와 함께 누우면 꽉 차는 공간이었지만 그런 환경에서도 아들은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주었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아들의 크는 모습을 보면 저는 웃을 수 있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2020년, 마침내 그동안 모은 저축과 주변 도움 덕분에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을 청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했던 경험을 토대로 양동시장에 작은 닭 가게를 열었습니다. 비록 임대로 얻은 작은 가게였지만 내가 번 돈으로 가게를 마련했다는 사실에 내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사업은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아 택배로 보내주기도 하고, 가게를 찾는 사람들에게 직접 팔기도 했습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했습니다. 2020년 초부터 불어닥친 코로나19는 전 세계인을 공포로 몰아넣고 많은 자영업자들의 무덤이 되었지만 저에게는 하늘이 주신 절호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외출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 택배 주문이 늘었고 덕분에 사업은 점점 번창해갔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지나는지, 계절이 어떻게 바뀌는지 모를 만큼 하루하루가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그 사이에 저보다 먼저 한국에 들어와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던 동생이 부모님을 모셔왔고, 부모님은 제가 작은 셋방에서 비록 허름하지만 오래된 아파트 하나를 사서 안정된 생활을 하는 걸 보고서야 베트남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지난 6년이 꿈만 같습니다. 결혼이민자로 부푼 꿈을 안고 한국에 첫발을 내디뎠을 때의 기대감, 시간이 갈수록 그 기대가 산산조각 나던 기억, 앞이 안보일 것 같던 깜깜한 순간에 내게 손을 내밀어 줬던 쉼터와 행정센터 직원분들, 센터 선생님들, 그리고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던 친정 부모님들. 이 모든 분들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2023년 현재, 제 사업은 안정기에 들어섰습니다. 제 힘으로 아들을 키울 수 있고, 동생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지금껏 받기만 했던 제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여유도 생겼습니다. 저는 새롭게 꿈을 꿉니다. 제가 힘들었을 때 누군가의 손을 잡고 일어설 수 있었듯이 저도 그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고 싶습니다. 옛날의 저처럼 눈물 흘리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이나 외로운 노인분들에게 삶의 작은 기쁨을 줄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열심히 저축한 돈으로 자신의 가게를 마련

마지막으로 저와 같은 외국인을 외면하지 않고 용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은 대한민국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주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은 광주남구가족센터 선생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나와 우리가족의

한국생활 성장기

(광주서구가족센터 고맙습니다)

방 월 주
FANG YUEZHU

국 적 중국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이민자 방월주라고 합니다.
저는 2008년 한국으로 유학을 와서 어학원에서 한국문화를 배우며 국어국문학과에 진학하여 졸업을 하였고 이후 한국어 교육학과 석사과정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던 중에 현재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 한국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센터 프로그램 활동 사진

저는 결혼 후 바로 아이가 생겨 어쩔 수 없이 집에서 10년 동안 아이들을 키우고 집안일만 했습니다. 그러다 아이들이 커서 조금의 여유가 생겼고, 그래서 다시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10년 만에 나의 생활을 할 수 있어서 설레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였는데 지인으로부터 광주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광주서구가족센터라는 이름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10개 이상의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심리상담 서비스도 이용하였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았고 또한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모두 소중한 추억과 경험이어서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센터에 온 첫날부터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저와 저희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들을 키우다보니 어쩔 수 없이 제 꿈도 같이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 10년 동안 제 자신 없이 아이와 남편만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행복할 때도 많았지만 속상하고 불행하다고 느낄 때도 많았습니다. 왜 이런 감정을 느꼈는지 나중에 상담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자존감이 엄청 낮아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참여한 첫 프로그램은 다문화여성 외국어강사 양성 과정이었습니다.
다른 기관에서는 하지 않는 교육이었고, 아이들한테 선생님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어릴 적부터 소원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제가 다시 세상으로 나오는 동아줄이라고 생각했고 더 간절히 배웠습니다.

센터 프로그램 활동 사진

강사 선생님께서 10여 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저희에게 아낌없이 주셨다는게 너무나 놀라웠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수업에 참여하면서 강사 선생님께 칭찬도 받았습니다. 잘했다, 잘했다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노력한 과정을 눈여겨 보셨고 그 과정을 칭찬해주셨습니다. 강사 선생님께서 제가 낸 아이디어를 채택해서 수업에 적용하셨다고 하여 너무 감동 받았습니다.

10년 동안 집에만 있다 보니 내가 과연 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제 아이디어를 실제 수업에 사용을 하셨다고 하니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때가 바로 제가 새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모든 과정을 수료하고 파견을 나갔습니다. 파견 수업은 생각보다 많이 힘들었지만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신 광주서구가족센터 박효진 선생님이 계속 저를 응원해 주셨고 지지해 주셨습니다. 그분 덕분에 파견 수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공동육아

나눔터의 중국어 수업 제안을 받게 됐을 때도 위축되지 않고 지금보다 더 나은 수업을 할 수 있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센터 프로그램 활동 사진

저도 아이처럼 선생님이 믿어 주신만큼 성장한 것 같습니다. 사실 연초에 친구한테 연구소에서 같이 논문을 쓰자는 제안을 받았지만, 아쉽게도 자신도 없고 용기도 없어서 아이 핑계를 대며 거절을 했었습니다. 지금 다시 그때와 같은 제안을 받으면, '나를 그만큼 인정해 준 거로 생각하고 제안을 받아주고 믿어준 만큼 보다 더 잘하려고 노력해야겠다.'라고 다짐했고, 이 부분이 광주서구가족센터의 프로그램을 참여한 후 저의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더욱더 적극적으로 저희 아이들한테 맞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센터 홈페이지를 찾아보았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이 정말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희 딸에게 다문화가족 자녀대상 진로코칭 프로그램을 신청해주었습니다.

저희 딸이 진로코칭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직업체험을 경험해보았고 시야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저한테 '엄마, 내가 모르는 직업이 이렇게 많을 줄이야. 신기해, 재미있다. 그리고 내가 직접해 볼 수 있어서 더 좋았어'라고 말하였습니다. 게다가 특수분장 직업체험 수업에서 자기가 직접 분장한 상처 난 손을 사진을 찍어서 할머니께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놀라셔서 바로 전화가 왔던 추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여름 방학 때 저희 딸에게 센터에서 운영하는 중국어 수업을 신청해주었습니다. 딸이 수업이 재미있다며 제가 데려다주지 못하는 요일에는 혼자 버스를 타고 센터에 가서

공부하기도 하였습니다. 순간 아이가 너무 대견하기도 하면서 빨리 커버렸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중국어 과정을 마치고 성취감을 얻었는지 스스로 이중 언어 말하기 대회에 나가겠다고 신청을 하고 매일 연습하였습니다. 아이가 노력한 만큼 원하는 상도 받고 스스로 뿌듯해하는 것 같아 너무 기뻤습니다.

센터 프로그램 활동 사진들

우리 집에서는 가끔 중국어로 조금씩 대화를 합니다. 하지만 아들은 중국어를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자꾸 중국어로 말하지 말라고 못 알아듣는다며 중국어로 대화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도 센터에서 운영하는 여름 방학 중국어 교실 신청을 해주었습니다. 아들은 수업받으러 가는 내내 저에게 중국어 배우기 싫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수업을 받는 동안 걱정이 되었지만, 수업 끝나고 나온 아들이 제게 '엄마, 나 이제 중국어 잘하게 됐어, 다음 주 또 올 거야'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반응을 보여준 아들에게 놀랍고 선생님께 감탄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제 아들의 마음을 한 번에 잡아주다니... 그 이후에도 아들은 중국어 수업을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수업을 받은 날마다 엄마한테 자기가 배운 중국어를 자랑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의 중국어 수업도 마무리되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좋은 엄마가 되어주고 싶은데 항상 말이나 행동으로 아이들한테 상처를 더 많이 줬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부모의 욕심 때문에 아이들을 힘들게 한 건가,

소통 방식이 틀렸나,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각종 의문이 많았습니다. 마침 간절히 원하던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아이러브 부모성장교실') 신청하였습니다. 총 두 번의 수업인데 첫 수업에서 인상 깊었던 것은 부모가 아이의 역할을 맡고, 강사님은 부모 역할을 맡아 해보는 상황극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아이가 되어 부모한테 끌려가는 나의 모습이 바로 내 아이의 모습이었다는 게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부모가 아이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도 않으면서 왜 아이한테 굳이 부모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업 중에 선생님께 마음을 여는 대화방식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두 번째 수업은 집에서 만나는 요리 활동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센터에서 제공해준 파스타와 스테이크 밀키트를 챙겨 오랜만에 시부모님댁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요리를 하고 상을 차렸습니다. 시부모님은 너무 좋아하셨고 손자, 손녀 앞에서 저희 부부한테 부모님을 챙겨줘서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덕분에 온 가족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가족 간의 관계가 더 가까워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상 쓴 내용 말고도 의미있고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많았습니다. 제가 지금 받고 있는 심리상담,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양성과정, 부모자녀 관계 향상 프로그램, 저희 딸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한 뼘 성장 사다리 교실 과학탐구 그리고 2022년 결혼이민자 정착 단계별 지원패키지 등 모두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또한 외국어 강사양성과정 수료 후 공동육아 나눔터라는 곳에서 초등학교 아이들 대상으로 중국어 교실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일이 다 쓸 수 없어 아쉽지만 그래도 이 기회를 빌려 광주서구가족센터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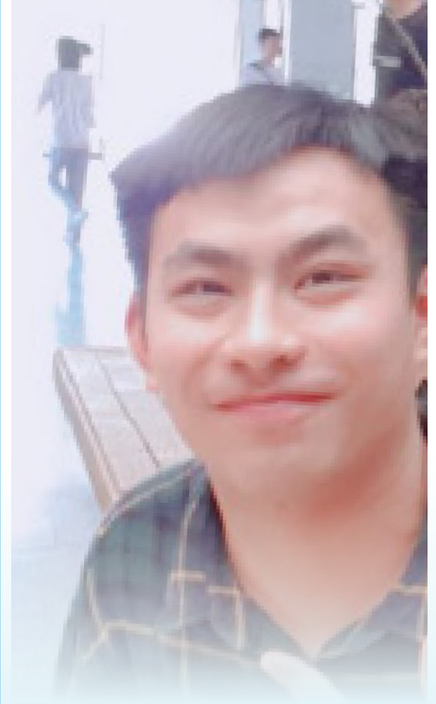
광주서구가족센터와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덕분에 제가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계속 공부할 예정입니다. 제가 속한 문화도 아이들에게 알리고 싶고, 다문화에 대한 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수업에 녹여 아이들에게도 타문화에 대한 포용적인 태도와 행동을 기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광주서구가족센터 다문화 이해 교육 강사인 다이음 사업 강사 채용에 지원했고, 운 좋게 채용이 되어 현장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센터 프로그램 활동 사진

비록 지금은 경험이 많지 않지만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임을 가지고 현장에서 강의에 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험이 쌓여 저의 강의 노하우가 생기면 제가 광주서구가족센터에서 도움을 받은 것처럼 저의 강의 노하우를 한국에 정착한 후배 강사에게 나눠주고 싶습니다.

우리 가족처럼 한국에 거주하는 모든 다문화가족이 행복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사의 마음을
알게 해준
승식 형



DAO VAN SANG

국 적 베트남

한국에 온 지 벌써 6년째가 되었다. 처음에 한국에 첫 걸음을 걸었을 때를 생각하면 그때는 너무나 어려웠던 시간이었다. 한국어를 잘 몰라 소통을 이끌어가지 못하고, 친구들도 많지 않았다. 매일 학교에 갈 때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주변에 친구가 없어 뭐든지 다 잘 하지 못했다. 그리고 교수님의 수업 속도가 너무나 빨라서 공부에 집중하고 싶어도 잘 안 되었다. 결국 한 학기 성적을 좋지 않게 받았다. 6년 전에는 이렇게 한국에서 유학생활을 보냈다.

한국인 대학선배(멘토)와의 추억사진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힘든 모습으로 학교 구내식당으로 가고 있었다. 오늘도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가는 길에 갑자기 아는 베트남 선배를 만났다. 당황해서 제대로 인사도 못했다. 그런데 선배가 나한테 종이 한 장을 주면서 신청해 달라고 하고 곧바로 가버렸다. 뭔가 궁금해서 읽어 보았다. 그건 바로 "외국인을 위한 Learning Mate"라는 프로그램을 모집하는 종이었다. 집에 가서 자세하게 읽어 본 후 바로 신청했다. 며칠 뒤에 전화가 와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나는 기쁘게 웃었다. 내가 상상하고 기대했던 대학생으로서의 첫 활동을 시작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드디어, 활동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다. 앞으로 학습과 대학생활을 도와줄 멘토 형을 매칭 받아 활동을 시작했다. 그 형과 처음 만났을 때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점점 친해져서 학습과 한국문화를 비롯한 한국 대학생활에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 형은 최승식이라는 한국형이었다. 더운 여름 날씨와 바쁜 시험기간 중에도 형은 단 한번도 약속시간을 어기지 않고 학습방법을 알려주었고 공부했던 것을 같이 복습해주었다. 형도 다른 과인데 나와 같이 공부를 해서 큰 부담이 될까 봐 걱정되었고, 형에게 그냥 한국어만 가르쳐주고 한국어로 같이 대화해 주면 된다고 말했다. 근데 형이 나한테 괜찮다고 말했다. 그리고 어디서 내 전공 책을 구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의 전공책까지 참고하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다시금 천천히 설명해 주었다. 그 형 덕분에 그 전공과목은 좋은 성적을 받게 되었다. 너무나 좋았다.

한국인 대학선배(멘토)와의 추억사진

우리 멘토-멘티 프로그램은 외국인 유학생 한 명과 재학 중인 한국인 선배 한 명으로 구성한 학습 팀을 만들어 나와 같은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적응을 돕기 위해 전공 학습, 한국문화 등을 같이 진행하는 활동이다. 그래서 승식 형과 학습 외에도 사회생활, 문화 탐방 등 다양한 현장 학습도 같이 가며 시간을 보냈다. 김광석 거리 투어, 대구 박물관 등 나 혼자서 가기 어려운 대구의 많은 곳을 형이 있어 갈 수 있었다. 그때 형이 관광 가이드처럼 나에게 안내해 주었다. 긍정적인 성격이 넘치는 승식 형을 볼 때마다 나도 형처럼 하고 싶었다. 그래서 형에게 대외활동, 봉사활동을 어떻게 찾았는지 물어보았고, 형은 친절하게 알려주었다. 이렇게 시간을 내서 나와 함께 학습과 현장 학습까지 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승식 형은 항상 끝까지 도와주었다. 승식 형 덕분에 한국 유학생활을 외롭지 않게 보내고 있고, 사회에 나가서 공익 활동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금은 승식 형이 졸업하여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나는 이곳저곳 다니면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가끔씩 서로 연락하고 같이 밥을 먹고는 한다. 직장생활로 바쁠 텐데도 연락할 때마다 승식 형은 항상 빠른 시간 내에 답장을 보내주고는 한다. 격려도 해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어떤 활동에 도전하고 싶을 때 응원해 주고 형은 나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형을 만난 것이 한국에서 만난 가장 소중한 인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형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었다. 형 덕분에 시작한 대외 활동과 봉사활동에 나가서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고, 소중한 인연들도 계속해서 만들어 왔다. 봉사할 때 봉사하시는 이모, 아버님처럼 달서재난안전봉사단 전 단장님, 멘토링을 나갈 때 귀여운 멘티, 동료들, 담당선생님들을 만나게 되었다. 나는 욕심이 많아서 만난 분들의 이야기를 열심히 듣고 소중하게 마음속에 담아 놓았다. 왜냐하면 승식 형을 통해 사람을 통해 배우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걸어가는 길은 각자 다르지만 모든 순간을 소중하게 기억하려 한다. 언젠가는 한국생활을 후회없이 보냈구나 생각하며 인생에서 최고로 좋은 추억들을 떠올릴 수 있도록 말이다. 한국에서도 만난 승식 형과 모든 분들에게 이 글을 통해 간접적인 감사인사를 드린다. 그동안 한국생활에서 많은 도움을 받은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오늘도 만나서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한국인 대학선배(멘토)와의 추억사진

제16회 세계인의 날
TOGETHER DAY

한국에서 만난
특별한 인연

DINH THI VAN

국 적 베트남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유학생 딘티반입니다. 한국 예명은 김가은입니다. 저는 한국에 온 지 6년이 되었고 수성대학교에서 호텔조리학과를 졸업 후 영남대학교 경영학과에 편입생으로 입학했습니다.

저는 베트남의 산골에서 태어났고,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십니다. 부모님이 열심히 일해도 우리집이 아주 잘 살지는 못했지만 무엇을 해도 결과만 보지 말고 견디고 최선을 다 하면 충분하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국유학을 다녀 온 이웃집 오빠가 한국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알려 주어 한국유학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우리집 형편은 어렵지만, 딸의 꿈이라서 부모님이 가지 말라고 못하셨다는 것을 알고 저는 빚을 다 갚고 부모님께 더 좋은 일을 해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이자 선생님같은 아르바이트 가게 사장님과의 추억 사진들

한국에 와서 높은 건물, 지하철, 공원 등 발전한 나라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6개월이 지난 후, 한국에서 생활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다행히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교를 다녔지만 빚이 걱정되서 인생을 포기하려는 생각이 들었고 친구들이 사장님에게 말했는지 사장님이 이런 제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계시면서 "반아, 반아, 포기하지 말고 조금 더 노력해 사장님도 최대한 도와 줄게", "인생 버리지 마라"라고 해주셨습니다. 매일 저를 다독여주시는 사장님에게서 따뜻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사장님은 끈질긴 사람입니다. 직원들이 한국말도 잘 못 하고 모두 어린이 같아서 너무 힘들었을텐데도 큰 소리로 야단쳐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장님은 직원들에게 한국말부터 가르쳐 주시고 직원들이 실수했을 때도 괜찮다고 말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손님들도 가끔 불평을 했는데 사장님은 화내지 않고 우리가 잘못한 부분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장님은 항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을 대해주시고 한국을 더 알려주고 싶다고 하시면서 매년 여행비용을 따로 저축해서 직원들과 여행을 다녔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우리는 부산, 광주, 거제도, 제주도 등을 함께 여행했습니다.

아버지이자 선생님같은
아르바이트 가게 사장님과의 추억 사진들

사장님은 한국 아버지입니다. 직원들의 생일을 기억하셔서 생일파티를 해주시고 가게에 약통을 만들어서 생리통약, 감기약, 기침약, 화상 약 등을 넣어두셨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시험을 칠 때마다 가게 냉장고에 햇반, 반찬, 음료수, 우유 등을 준비해 주시고 옆에서 응원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이자 선생님같은
아르바이트 가게 사장님과의 추억 사진들

또한 사장님은 우리의 선생님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공부에 흥미가 없었는데 사장님이 지금도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사장님은 항상 공부해야 된다, 대학은 인생을 배우는 곳이라 했습니다. 저는 후회하고 싶지 않아서 토픽을 열심히 공부해서 토픽 5급을 따고 영남대학교에서 100%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사장님을 생각하면, 그리고 내 인생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쉽게 포기하지 않으려 합니다. 사장님은 한국에서 취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셨고 토픽 시험을 잘 치면 사장님이 장학금도 주십니다.

사장님은 제 인생을 바꾼 사람,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저는 무엇이든 잘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제16회 세계인의 날
TOGETHER DAY

검정고시부터 영화감독까지

열혈 한국어 사랑

ARITA KUMIKO

국 적 일본

한국어와의 인연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 사진

저와 한국이라는 나라의 만남은 제가 초등학생 때 였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근처 공원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고 있는데 친구의 여동생이 같이 놀자고 왔습니다. 우리는 즐겁게 놀고 다음날도 또 놀기로 약속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여동생이 항상 늦게 와서 늦게 오는 이유를 물어 보았습니다. 그 여동생이 "나는 학교 수업이 끝난 후에 학교에서 한글을 배우고 있어"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저는 '한글???' '한국???' 아직 외국이라고 하면 미국, 프랑스 밖에 모르는 저에게는 굉장히 신기한 대답이었습니다. 그 때 처음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알게 되었고 한국어라는 언어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 인사 정도만 배웠지만 중학생 때 학원에서 만난 친구와 친해지면서 한국어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와 같이 밥을 먹고 있을 때 저한테 "숟가락을 줄까요?"라고 했는데 저는 숟가락이 무엇인지 이해가 안돼서 멍하게 있으니, 친구가 "아~ 한국어를 모르는군요. 숟가락은 일본 말의 스푼을 말하는 거예요"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때 숟가락이라는 단어의 소리와 느낌이 너무 귀여워서 나도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좌충우돌 한국어 공부기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마음은 있었지만 가르쳐 주실 선생님도 없으시고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국 국적을 가진 남자와 사귀게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지만 남편 역시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해 혼자서 책으로 공부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책으로 열심히 공부하니 어느 정도 단어를 외워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한국인과 대화를 해보니 전혀 통하지 않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니 원인은 바로 발음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발음의 중요성을 전혀 몰라서 일본식으로 소리를 내어 의미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난 후 한국에 가서 한국어를 제대로 배워야겠다고 결심 하였습니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자원봉사 활동 사진

2014년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부산대학교 어학당 2단계 수업을 듣기 시작하였지만, 수업 진행이 너무 빨라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매일 매일 수업이 끝난 후에 집에서 한국어/일본어 사전을 찾아가며 울면서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한국어 단어를 많이 외우고 있고, 일본어와 한국어가 비슷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간단하게 생각했었는데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면서 한국어를 더 많이 알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어떻게 공부하면 제대로 한국 사회를 배울 수 있을 까?'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검정고시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 이민자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한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여 기뻤습니다. 특히 국어 시간에는 한국어를 기초부터 배울 수 있어서 흥미로웠고 한국어 쓰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후 고등학교 과정을 거쳐 대학교 한국어교육학과에 입학하게 되었고, 한국에 거주하는 다른 외국인들에게 한국 사회복지제도를 알려주고 싶어 사회복지학과 그리고

외국에 살면서 마음이 힘든 외국인들을 위해 상담심리학과를 복수 전공 하였습니다. 사회복지학, 삼당심리학를 공부하였고 2024년에는 한국어교원 2급,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사회복지사 2급, 평생교육사 2급, 삼당심리지도사 1급을 취득할 것입니다.

한국에서 나의 재능발견

이렇게 한국이라는 나라를 배우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친구의 소개로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서 민원실 방문 외국인들에게 민원 신청 서류 작성을 돕는 자원봉사활동도 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부산국제영화제 마을영화만들기 프로젝트 참여 사진

그리고 작년에는 2030부산세계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부산에 거주하는 외국인 100명으로 구성된 '엑스포 프렌즈'로도 뽑혀 활동하고 있습니다. 원래 부산외국인주민대표로서 활동하고 있었지만 특히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관심이 많아서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부산국제 영화제 「마을영화만들기 프로젝트」 중 '부산세계박람회 홍보 및 영화도시 부산 브랜드 강화를 위한 부산거주 외국인 주민이 직접 제작한 단편영화 만들기'에 한국에서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시나리오가 당선되어 연출, 주연도 하게 되었습니다.

▲ 영화'귀와 혀' 스틸컷

· 단편영화 제목 : 귀와 혀
· 감　독 : 아리타 쿠미코
· 줄거리 : 부산으로 유학을 온 지 얼마 안된 유학생 미미는 서투른 한국어로 인해 곤혹을 치른다. 아직은 언어가 서투른 미미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

영화의 제목은 '귀와 혀'라고 지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외국인들은 공부를 하면 한국어를 이해 할 수는 있지만 '귀와 혀'가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사람처럼 대화가 잘 안 될 경우도 있다는 것을 전달하고 싶어서 붙인 제목입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한국 사회 속에서 즐겁게 살고 싶고, 저의 지금까지의 경험을 살려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무엇인가 전달할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저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을 제2고향으로 여긴

부산명예시민의 삶

왕 의 립
WANG YIL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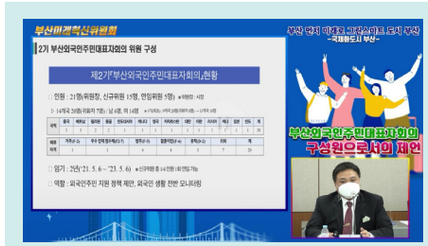
국 적 중국

자기 소개

저는 늘 부산을 제2고향으로 여기고 늘 부산을 사랑하는 제270호 부산명예시민 왕의립 WANG YILI 입니다. 맥주로 유명한 도시 중국 칭따오에서 왔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절반인 19년 동안 동방예의지국으로 알려진 한국에서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2008년 유학생 시절부터 지금까지 부산에 거주한 지 16년이 되었습니다.

부산과의 인연

유학생 출신인 저에게 부산은 행운과 행복의 대명사입니다. 학창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한 덕분에 운이 좋게 졸업과 동시에 모교인 부산외국어대학교 국제교류처에 근무하게 되었고, 조교부터 계약직 직원에 이어, 직종전환으로 현재 정규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담당업무 중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 뿐만 아니라, 중화권 대학과 고등학교 관계자 내방 의전도 있습니다. 항상 손님을 모시고 부산박물관, 누리마루, 송도케이블카 등 부산의 관광명소를 다니면서 부산사람처럼 친절하고 자신감을 가지며 외국 손님들에게 우리 부산을 소개, 홍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오래전부터 이미 부산사람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부산외국인주민대표 활동사진

활동과 성과

2019년부터 부산 거주 외국인 이주민 8만2천명 시대가 열렸고, 부산 거주 외국인으로서 외국인 이주민을 위하여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으로 부산시 부산국제교류재단이 운영하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생활역량강화분과 위원장에 이어, 부산시 외국인주민지원협의회 위원, 1기 글로벌시민자문단, 부산 엑스포 프렌즈 홍보단, 부산도시브랜드 상상더하기 시민참여단 등 정말로 많은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직장인으로서 고유 업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빠짐없이 성실하게 활동하였다고 말할 자신이 있습니다.

수많은 성과 중에서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것은 바로 부산 거주 외국인어린이 보육료 지원 관련 조례 개정입니다. 2023년 3월부터 만3세~만5세 유치원 누리과정에 재원 중인 (등록)외국인 아동에게 내국인아동과 동등한 보육료를 지원하는 조례 개정에 부산시와 부산시 교육청을 통해 부산외국인 주민들을 대표하여 제안하고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이루어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하여 저는 새롭게 성장할 수 있었으며, 저의 제언이 현실로 전환되는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부산시 외국인 이주민을 위하여 더 많은 활동을 하면서 생활역량강화 및 복지증진에 열심히 하겠다는 원동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 노력 끝에 저는 영광스럽게 제270호 부산명예시민으로도 선정되었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유공자로서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여 받았습니다.

부산외국인주민대표 활동사진

부산 명예시민증 수여식 사진

부산 명예시민증 사진

포부

앞으로 부산을 사랑하는 마음과 부산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담아, 최선을 다하여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활동, 영어하기 편한 도시 부산 등 다양한 활동으로 실천하겠습니다. 제 좌우명은 'once busanian, for ever Busanian', 한번 부산 사람이 되면, 영원히 부산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 머릿속에 포기란 단어는 배추를 셀 때 사용하는 단위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산 거주 8만여 명 외국인 이주민 대표로서 늘 저희에게 지원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부산시, 부산시교육청, 부산국제교류재단, 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 각 구(군) 다문화센터 등 기관에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슬로건 하나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주민과 함께, 우리 부산 더 아름답게."

제16회 세계인의 날
TOGETHER DAY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 덕분입니다!

Samy Rashad

국 적 이집트

한국, 모국어로는 '코리아'라는 단어를 처음 들은 것은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중학교 2학년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축구에 대한 열정이 있어 흑백 텔레비전으로 거의 모든 경기를 실시간 시청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 팀이 놀라운 활약을 보이며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성과를 내어 전 세계 팬들의 관심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한국 팀의 성적에 감탄한 사람 중에 저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으로 본 한국은 축구장에 불과했지만, 열정적인 관중들 그리고 애국심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드러내는 모습이 이집트 사람인 저에게는 친숙했습니다. 한국 사람이 이런 점에서 이집트 사람과 매우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국내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 출연

월드컵이 끝난 후 한국과의 인연이 끊긴 줄 알았습니다. 사실 한동안 그랬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 카이로에 있는 외국어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는 한국이라는 이름을 다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인기가 많은 독일어과와 러시아어과를 다니던 선배가 한국어과에 대해 처음 소개해 주었습니다. 한국어과는 새롭고, 학생을 많이 받아주지 않으니 취업 기회가 풍부하다고 하며 한국어과에 입학하라고 선배들이 조언해 주었습니다.

선배들의 설명을 듣고 한국어과에 입학한 저는 단순히 나중에 졸업하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와 희망만으로 수업에 출석했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들의 설명도 듣고 한국 관련 자료를 보면 볼수록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르게 보게 되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길"에서 "더 넓은 세상을 보게 해주는 기회"로.

중동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이면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처음에 어려웠지만, 한국을 빨리 알고 싶은 마음 때문인지 한국에서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인지 모르지만, 외국인 학습자가 겪는 초기의 어려움을 빨리 극복해서 한국말을 잘하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졌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 가을에 제 한국어 실력 향상을 인정받아서 2학년을 마치고 한국에서 어학당을 다닐 수 있는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한국-중동 관련 특강하는 모습

산이 많구나, 깨끗하구나, 이 두 가지가 한국에 대한 제 첫인상입니다. 그리고 등하교를 하면서 사람들이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저처럼 장학금을 받고 한국에 온 다른 나라의 유학생들과 어울려 서로의 경험과 고향의 배경을 공유하면서, 한국에 오지 않았으면 접할 방법마저 없었던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국해도 꼭 다시 와서 한국 생활을 더 오래 하고 싶은 소원이 생겼습니다.

이집트로 돌아가서 학업을 마치고 한국에 올 수 있는 장학금을 찾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한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석사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다시 온 것은 2012년 여름이었는데 그때는 이미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고 그동안 한국에 대해서 배운 것이 많아서 처음 방문했을 때보다 적응을 더 잘 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을 알게 된 만큼 이집트, 아랍 그리고 이슬람 문화를 한국인들에게 알려 주고 싶은 욕망이 가득 찬 상태였습니다.

2012년부터 한국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한국과 중동이 더 가까워지고, 서로 잘못 알고 있던 편견이나 오해가 없어질 수 있는지 고민하면서 지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에 JTBC에서 하는 '비정상회담'이라는 방송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발표 과제를 할 때마다 최대한 이집트나 아랍 문화, 역사, 경제 등 여러 측면에서 중동 지역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공유해 왔습니다. 이제는 방송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아서 정말 복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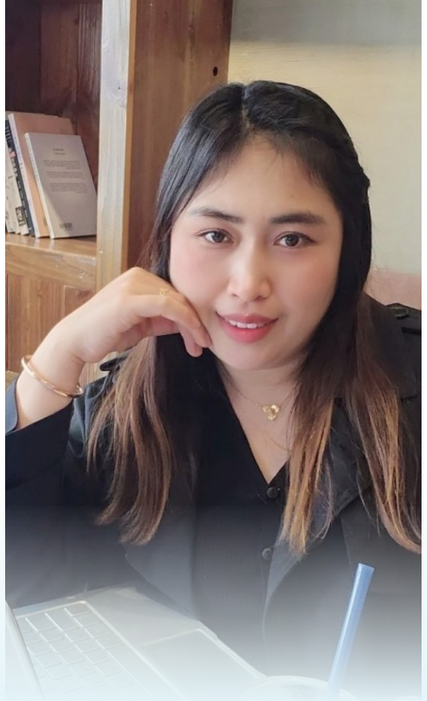
비정상회담에서 1년 동안 활약한 후 KBS, TV조선, MBC, MBN, 채널 A 등 국내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한국-이집트, 한국-중동, 한국-이슬람 등 한국과 우리 지역의 관계 및 역사와 그것이 변화해 온 과정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해 봤습니다. 한국 방송의 제작진을 모시고 이집트 현지 촬영도 한 적이 있습니다. 중앙일보, 코리아 포스트 그리고 코리아넷 등 신문에서 주기적으로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주로 한국을 바라보는 중동인의 생각이나 한국과 이집트가 가진 공통점, 차이점 등 관련 주제들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석사 과정을 마치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서 한국 기업에서 취직할 생각으로 한국에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이 저에게 이렇게 많은 기회를 줄지 몰랐습니다. 한국에 오고 싶었지만 그럴 비용도 없었습니다. 그때 한국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했다면 다시 한국에 올 수 없었습니다. 애초에 우리 대학교에서 한국어과를 창설한 것도 대한민국 정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집트에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었던 것도 한국 덕분입니다. 지금 제가 한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고마운 마음이 크다고 하면 놀라운 게 아니죠? 감사합니다.

한국-중동 관련 특강하는 모습

제16회 세계인의 날
TOGETHER DAY

봉사는 사람을
아름답게 한다.



연 유 진

국 적 대한민국

원국적 캄보디아

5남매 중 3번째 딸로 태어나 부모님 밑에서 자라면서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캄보디아에 있을 때 학교 공부와 노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등학교에 다니다가 한국 드라마를 봐져 드라마 속에 있는 한글과 문화, 음식 등이 너무 좋아서 한국에 꼭 가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부모님께 허락 달라고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매일 매일 한국에 가는 것을 간절하게 바라면서 학교에도 잘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런 딸의 모습을 보고 결국 한국에 가는 것을 부모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다 신기하고 좋았습니다. 첫 번째 일 년 내내 더운 캄보디아에서는 볼 수 없었던 계절 겨울, 봄, 가을입니다. 겨울은 춥지만 하얀 눈이 내려 너무 신기했습니다. 스키장과 썰매장에 가서 썰매를 탔는데 너무 재미있고 꿈만 같습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 다양한 꽃들이 피어서 산이나 길가를 보면 천국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 날씨는 사람의 마음을 조금 우울하게 만들었지만 자세히 알면 정말 신기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하루하루 날이 지날수록 나뭇잎 색깔들이 변하고, 어느 날은 잎들이 땅에 떨어져 아주 아름다운 단풍이 만들어져서 예뻤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국에서 15년 살아오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것이 새롭고 신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많은 경험을 누리고 있습니다.

2009년 1월 30일 첫째 아이를 낳기 전까지 열심히 한국말과 한국문화를 배웠으며 둘째 아이를 낳은 후에도 열심히 아이를 키우면서 공부하고, 시간을 내어서 틈틈이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직장을 찾지 않고 한국인 부모님처럼 아이들 숙제를 봐주고 한국인 엄마들과 소통하고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한국 검정고시 초등과정부터 고등과정까지 다 마쳤습니다. 아이들 사춘기 때는 어떻게 대처 및 교육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방송통신대학교에서 청소년교육과에 편입하고 현재 4학년 재학 중입니다. 학교 다니면서 프리랜서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청 자원봉사

첫 번째 봉사는 2011년 어르신을 돕기 위해 연탄 나르는 일을 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추운 날씨에 연탄 배달을 하는데 너무 춥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봉사활동이 끝나고 어르신들이 '덕분에 한겨울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다'고 정말 고맙다고 인사 말씀을 하셔서 마음이 너무 뿌듯하고 보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봉사는 노인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어르신들에게 어깨를 주물러 주는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2년 동안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캄보디아에 계신 할머니가 생각나서 더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봉사는 2014년 서울역 근처에 있는 쪽방 상담소에서 독거노인들을 위해 설날에 떡국을 만들어 집까지 배달했습니다. 그리고 거주하고 있는 방이 너무 낡아서 집안 대청소도 해주고 새롭게 페인트칠을 해드렸습니다. 독거노인들은 가족이 없어서 너무 외로웠는데 우리가 가서 말벗도 해드리고 봉사를 해주니까 기분이 너무 좋고 행복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봉사는 외국인분들이 처음 한국에 입국하면 체류관련 절차를 받아야

하는 출입국사무소입니다. 저도 처음 한국에 왔을 때 한국말을 잘 몰라서 어떤 업무를 보려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말을 어느 정도 배우고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가서 외국인을 위한 통·번역 봉사도 하고 출입국 행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열심히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봉사는 서울송파경찰서에서 외국인 대상으로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동안 관련된 법(범죄, 마약, 보이스 피싱 등)에 대해서 안내하고 피해를 막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봉사하면서 뿌듯한 마음도 있고 많은 사람들과 같이 봉사해서 더욱 즐거웠습니다. 앞으로도 두 아이의 엄마로서, 한국에 정착한 이웃으로서 계속해서 봉사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유익한 활동을 해나갈 것입니다.

송파경찰서에서 외국인대상 안내

제16회 세계인의 날
TOGETHER DAY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다

김 상 옥

국 적 대한민국

숭실대학교 경영대학원 아동상담코칭 전공인 김상옥 교수는 2022.10.18. 부터 만 3세에서 만 16세까지의 이민자 가정 아동에게 언어·학습·심리 발달 검사를 시행했다. 이 검사는 아동 발달 단계에 따른 객관적 진단과 학습· 심리검사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부모들의 자녀양육 상담코칭 등을 제공하여 글로벌 인재로서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실시하였다.

김상옥 교수는 22.10.18부터 11.20까지 한달동안 신청자를 받고, 온라인을 통한 방법으로 아동발달검사 ,학습전략검사, 자아개념검사를 시행했다. 아동발달 검사를 통해 아동의 발달 정도를 파악하고 각 아동의 발달에 적합한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였고 ,학습전략검사를 통해 학습유형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이해하고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 검사를 하여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이해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게 하였으며 자아개념검사를 통해 아동의 자아영역별 자아개념의 수준을 측정하여 긍정적인 자신감과 동기를 제공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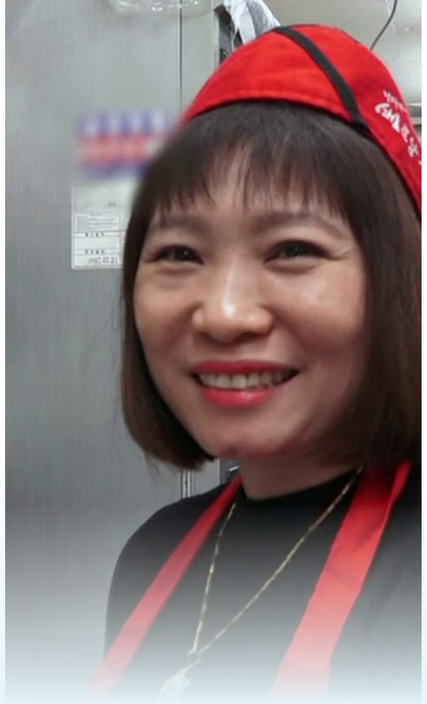
발달검사 지원 사업은 대부분 부모가 직접 신청하였으며 참여 인원은 총 82명 으로 검사대상 아동의 연령대는 7-8세(26.8%), 3-4세(17.1%), 9-10세(14.6%), 13-16세(8.5%), 기타(33%)순 이었고 ,한국출생(62.2%)이 가장 많았으며, 한국에 체류기간이 5년 이상(20.7%), 3-5년(8.5%), 3년 미만(3.7%), 기타(4.9%)이었으며 대부분은 한국국적(79.3%)를 보유하고 있었다.

김상옥 교수는 발달검사결과 경계 또는 지연범위에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검사에 참여한 부모들은 언어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열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얘기해 주는 등 적극적으로 상담에 참여하였다고하며, 부모들은 상담을 통해 자녀의 발달이나 학습상태에 대해 많은 이해를 하게 되었고, 양육에도 도움을 받았다고 했다.

김상옥 교수는 이번 검사를 계기로 상담이 필요한 가정의 자녀에게 지속적인 상담을 할 예정이며 다른 치료 대상자를 선별하여 추가로 아동발달검사를 지원 예정이라고 한다.

나는 미스사이공,

전티마이



전티마이
TRAN THI MAI

국 적 베트남

저는 2009년 남편을 따라 한국에 왔습니다. 남편이 포장마차를 운영해서 핫도그를 팔기 시작했는데 베트남 사람에 대한 차별과 서툰 제조법에 장사가 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베트남에서 엄마가 만들어 주었던 쌀국수가 생각나서 '한번 만들어보자!'하고 베트남 쌀국수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쌀로 만든 부드러운 국수에 소고기를 푹 우려낸 육수, 향신료 향이 나는 쌀국수는 한국에서 인기가 많고 잘 팔렸습니다. 그런데 주위 상인들의 신고로 포장마차의 운영이 어려워지게 되었고, 이참에 정식으로 쌀국수 가게를 열었습니다.

제가 '미스사이공'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연 가게는 노량진에 있었는데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은 동네라서 맛있는 쌀국수를 저렴한 가격으로 먹을 수 있게 3900원에 판매했습니다.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쌀국수 제조 비법으로 푸짐하고 저렴한 쌀국수를 만들어 판매하니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습니다. '미스사이공'은 전국에 200개 이상의 지점을 갖춘 프랜차이즈업체로 급성장하였으나 이후 사기를 당해 상표권이 넘어가고 현재는 제 이름을 딴 '전티마이 쌀국수'를 운영 중이며 프랜차이즈로 15개의 가맹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남편의 빚도 다 갚고 시어머니께는 집도 사드리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365일 쉬는 날 없이 하루 12시간씩 주방에서 일하지만, 고객 한 명 한 명을 내 가족처럼 소중하게 여깁니다. 장사가 힘들어도 작은 노점 시절의 초심을 잃지 않고자 지금도 여전히 엄마의 마음가짐으로 주방에 들어가서 음식을 하고 있습니다. 일이 고되다고 생각하지 않고 신나고 즐겁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낯선 땅에서 포장마차로 시작한 쌀국수 장사, 지금은 한국인이 되기 위해 귀화신청을 했습니다. 힘든 시기가 많았지만 저는 견뎌냈고 한국에 있는 이민자들이 저처럼 타국에서 고국의 음식으로 인정받고 성공도 한 사례가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전쟁도 제 꿈을
꺾을 수는 없어요

YUHAI VIKTORI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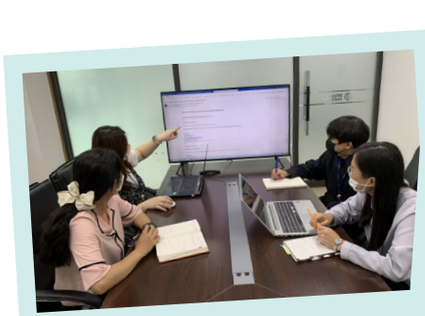
국 적 우크라이나

2022년 2월 4일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삶에서 예상치 못한 그리고 끔찍하게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저는 키예프에서 살고 공부했습니다. 저는 2021년 12월에 Kyiv National Economic University에서 경제학 학위를 받고 졸업했으며, 그 한 달 반 후에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 러시아가 곧 키예프에 대한 강력한 공격을 시작할 것이라는 소식에 저는 우크라이나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모님과 남동생이 6년 동안 한국에서 살고 있어서 한국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비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처음에 우크라이나의 이웃 나라인 폴란드로 갔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서 폴란드로 대피하는 거대한 대기 행렬 때문에 폴란드에서 비자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주재 한국대사관이 루마니아로 이전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행히 루마니아에서 비자를 받고 한국에 올 수 있었습니다. 저의 부모님과 남동생은 제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어서 매우 행복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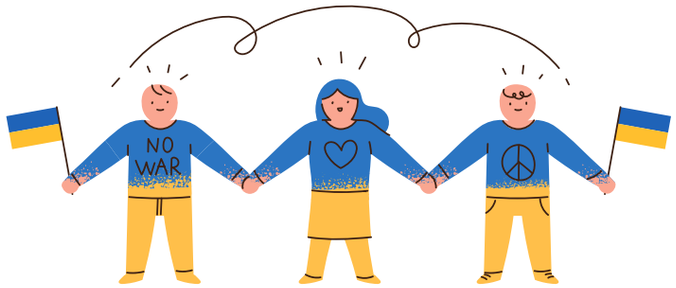
우크라이나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장밋빛 미래를 꿈꾸던 저는 예상치 못한 끔찍한 전쟁 앞에 막막하고 두려웠습니다. 한국에 올 수 있어 다행이었지만 낯선 한국에 와 걱정스러운 마음도 컸습니다. 한국은 살기 편한 환상적인 나라입니다. 하지만 문화 차이가 전혀 없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몇 달 동안 살면서 삶의 리듬이 익숙해진 후에 저는 미래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인은 유용해야 하고 발전해야 하며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좋은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해 저의 전공을 살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으나 상황은 달랐습니다. 일자리를 찾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때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서 어려운 점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배우고 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사회통합협의회의 도움으로, 저는 바람대로 위너스오토메이션에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위너스오토메이션의 대표이사이자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사회통합협의회 회장님이신 김춘호 회장님의 도움으로 실제 전문가들과 함께 일하며 유용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회사의 모든 부서 직원들이 저를 배려해주시고, 멋진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앞으로 회사에 더 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또한 한국어를 완벽하게 배우기 위해 노력합니다. 주말에는 오프라인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평일에는 온라인으로 한국어를 공부합니다. 지금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이 한국어로 말을 많이 해서 한국어를 연습하고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직도 전쟁은 계속 중이지만 친구 대부분이 우크라이나에 남아 있어 매주 연락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용기 내서 계속 버티자고, 곧 전쟁이 끝나고 우리끼리 서로 도와주다 보면 우크라이나도 금방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서로 응원합니다. 제 꿈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멋진 미래를 위해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전쟁이 끝나길 바라며,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한국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제16회 세계인의 날
TOGETHER DAY

정리수납의 달인이 되어
이웃에 봉사하러
나아갑니다.

DYU VIKTORIYA
ANATOLEVNA

국 적 우즈베키스탄

한국에서 살게 되면서 봉사하고 점점 사람들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봉사에 대해서 배우고 봉사하며 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들을 보며 어느새 봉사는 저에게도 낯설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받은 관심과 사랑을 어떻게 보답해줄 수 있을까? 외국인으로서 도움만 받지 않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부분의 한국인 인식 속에서는 '봉사를 받아야 하는 다문화가족'인 내가 '봉사를 하는 다문화가족'으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국에 온 지 15년이 되어가니 적응도 잘하고 거의 대한민국 사람이 되었어요. 날마다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나에게 자주 이런 질문들을 하며 고민이 많았어요. 일단은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수원출입국·외국인청 민원 안내 및 통역 봉사여서 2018년부터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봉사를 통해 충만한 만족과 보람을 느껴서 봉사를 계속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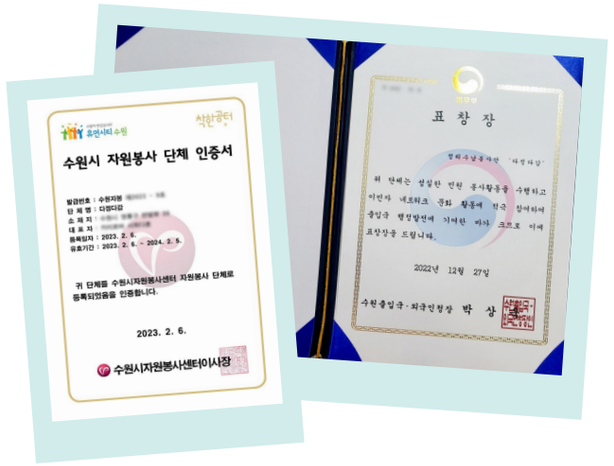
그리고 2022년 작년에 드디어 제 질문들의 답이 나왔네요. 봉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정리수납전문가 2급 양성과정을 16시간을 이수하고 시험을 보고 합격했거든요. 시험을 본 우리 모두가 합격해서 사회통합위원회 김춘호 회장님한테 식사 대접을 받았습니다.

공부하면서 배운 것들을 우리 집에서 먼저 활용하고 보니 집안 환경뿐만이 아니라 머리 속에 있는 생각 정리까지 할 수 있어서 참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교육을 다 마친 후에는 봉사하러 갈 어르신들께 드릴 양모가방을 직접 제작하여 선물하려고 준비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은 봉사 할 때 쓸 물품을 구입하여 다정다감 봉사단과 함께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 댁에 정리수납 봉사를 하면서 힘들지만 어려운 형편에도 열심히 사시는 모습에 우리도 많은 걸 배우고, 감동과 만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 방문해서 봉사한 어르신은 외팔이신데요, 가기 전 생각했던 걱정과 다르게 너무나 깔끔하시고 밝으셨습니다. 한 손으로 할 수 없는 정리를 도와드리니 어르신이 음료를 사주시며 너무 고마워 하셔서 큰 보람이 있었어요.

다음에 방문한 어르신 부부는 부부 사이가 멀어져 냉장고와 밥솥까지 따로 쓰시는 각방 생활을 하시면서도 어떻게든 한 집에서 같이 사시는 분들이었어요. 인내를 하면서 끝까지 참고 서로의 곁을 떠나지 않는 모습을 보니 요즘 너무 쉽게 헤어지고 안보는 젊은 사람들 모습과 비교되어 참 많은 걸 배운 것 같아요.

정리수납 봉사를 하고 난 후에는 고마워하는 어르신들을 보고 제가 더 힘이 납니다.
작년 봉사를 마무리하고 평가회에 전원 참석한 우리는 자격증을 받고 수원출입국·외국인청 박상욱 청장님과 함께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날 많은 격려와 응원을 받고 2023년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에 우리 “다정다감” 단체가 등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내년에도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봉사를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2023년에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봉사하러 나아갑니다.
다정다감 아자 아자 파이팅!

제16회 세계인의 날
TOGETHER DAY

이주여성의 한국어 수업을 통한 성공적인 한국사회 정착기

KIM AKIKO

국 적 일본

작성자 이점자

(남양주시 외국인 복지센터 한국어 강사)

저는 남양주시 호평 야학에서 성인 대상으로 한글과 영어를 가르치는 강사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한국어 강사로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이주 여성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 이주 여성의 이름은 김 아끼꼬(일본)이며, 대학을 졸업한 후 호주에서 유학 중에 현 남편(한국인)을 만나 결혼하였습니다. 그녀는 2008년 남양주시 외국인 복지센터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샬롬희망학교 한국어 교실 개강식

김 아끼꼬씨는 솔직하고 성실하며 지혜로운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소망반(고급 한국어반)에서는 반장으로 선발되어 학우들에게 모범을 보여주는 리더십을 발휘하였습니다. 저는 제 딸의 또래인 20대 이주 여성들과 함께 야외 학습 활동을 할 때, 김 아끼꼬씨는 저를 친정 엄마처럼 대우하며 집으로 초대하여 함께 음식을 만들고 먹곤 했습니다.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친가족과 함께하는 것과 같은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때부터 10여년이 넘도록 현재까지 김 아끼꼬씨와 졸업생들과 함께 "소망반"이라는 모임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김 아끼꼬씨는 모임을 위한 모든 상황에서 항상 앞장서서 준비를 하고, 물심양면으로 많은 이주 여성들에게 따뜻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한국어 수업 중

우리 집 초대

김 아끼꼬씨는 2017년경 개인적인 방문을 통해 한국어 기반으로 한국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기초 JLPT(Japanese-Language Proficiency Test) 지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도 취득하여, 남양주시 복지센터 내 아리랑카페에서 일한 경력이 있으며, 현재는 덕소에 위치한 블랙드롭 커피숍에서 유창한 한국어 실력을 발휘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김 아끼꼬씨는 일본인이었지만 한국 사회에서 현명한 아내이면서 사랑스러운 며느리입니다. 또한 아들 1명과 딸 2명의 어머니로서, 자애로운 어머니이자 지혜로운 어머니로, 아이들의 교육열 역시 한국 부모 못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그녀가 언제나 배우려는 자세로 살아가며, 당당한 이 시대의 한국 사회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 초대 후 음식 만들어 먹기

최근 커피숍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진

축제 :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소중한 날들

조 미 정

국 적 대한민국

축제란 질서가 존재하는 일상(cosmos)의 세속적인 존재를 일탈하여 무질서한 혼돈(chaos)의 세계로 회귀하는, 인간 사회의 보편적인 문화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어원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축제를 의미하는 festival은 기쁨, 환락, 흥청망청 떠들기를 의미하는 라틴어 festum에서 왔으며, 비슷한 어원인 feria는 신들을 위한 일로부터의 완고성을 의미한다. Festival과 비슷한 의미의 feast는 잔치, 향연이라는 뜻으로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을 의미한다.

아저씨들과 함께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와 한국문화 수업

그렇다 이 땅에 온 이주민들과 함께 하는 것은 축제이다. 다양함이 있어 축제이고 그들의 삶이 녹아있어 축제이다. 나의 삶 속에 그들의 다름이 들어와 생각하고 탐구하게 됨에 축제이다. 이렇게 그들의 문화를 알아감이 기쁨이 됨에 축제이다. 무엇보다 그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축제인 일상이다.

민뚜, 아이반, 레이놀드, 하킴, 라루만, 무키딘, 파드룬 이들을 만난 것은 2020년 봄부터이다. 한국어를 매개로 이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동안 수많은 이주민들을 만났지만 이들과의 만남은 내 삶에, 우리 가정에 기쁨이고 활력이었다. 아이들은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 아이반 아저씨를 찾고, 파드룬 아저씨의 인도네시아 노래와 말을 따라 한다. 행여나 그들이 바쁜 일로 결석이라도 하면 안부를 묻곤 한다. 처음엔 좀 낯설어 했지만

아이들의 친화력은 어른들의 그것과는 사뭇 다르다. 어느 순간부터 그들과 놀이를 하고 자전거를 타고 음식을 먹고 장난을 친다. 이렇게 아이들도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며 그들의 문화에 자연스럽게 스며든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의 가족이 되어간다.

가족은 문화를 공유하는 것이다. 보이는 문화이든 보이지 않는 문화이든. 가족은 마음을 공유하는 것이다. 공장 사장님과 자기와 다른 국적, 배경의 사람들과 소통의 어려움에서 오는 상한 마음을 공유한다. 어느 누구는 한국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에서 겪는 어려움을 나눈다. 오해를 받았다고, 이해를 못한다고, 그런 날이면 고향이 너무 그립다고. 또 어떤 날은 한국 남편과 가족들이 너무 좋다고. 이것이 가족인가 보다 한다.

한강을 향해 달리다 멈춰서서

휴가 기간 방문한 자신의 고향에서 사진을 찍어 보내고 안부를 하고 돌아올 때면 말린 열대과일들을 한 아름 안겨준다. 떡볶이를 먹고, 한국 치킨을 먹고, 비빔밥을 먹고 냉면을 먹던 친구들이 얼마나 고향의 음식이 먹고 싶었을까! 공장 기숙사에서 고향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하지만 힘든 일을 마치고 만들어 먹기가 쉽지는 않았을 텐데...그래도 성실히 한국생활에 적응하며 긴장하고 어려웠던 일들에 익숙해 가며 그들의 얼굴에도 미소가 살아난다. 필리핀에서 온 친구는 가족들이 그리울 때면 친구들과 자전거를 타고 양평으로, 서울로 자전거 길을 따라 여행을 한다. 가을 세계 불꽃 축제를 다녀와서 사진과 동영상을 보여주며 다녀왔노라 자랑을 한다. 어떤 친구는 휴일을 이용해 짧은 여행을 하고 동영상 콘텐츠를 올리기도 한다. 고향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한국을 소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국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며 한국 속 어두운 부분에 굴하지 않고 건강한 방법으로 그들의 삶을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가을 축제

코로나19로 움츠려 있던 일상을 회복하며 따뜻한 봄의 축제로 이들과 함께 나가 볼까한다. 이들과 함께 할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 삶인지 이 축제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생각하고 영원한 축제를 기약하며 글을 마무리한다.

제16회 세계인의 날
TOGETHER DAY

내 손을 거치면

모든 게 해결돼요

CHOKDER DIN ISLAM

국 적 방글라데시

나는 매주 일요일 이민자통합센터에서 외국인들의 고충상담을 듣고 문제해결을 위해 외국인들의 한국사회정착을 지원하며 이민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비록 외국인근로자로 한국에 왔지만, 센터의 배려로 사무실에 가면 내 책상 하나가 마련되어 컴퓨터 사용이 가능하고 이민자들의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민자들의 호소는 다양합니다. 어떤 이민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은데 회원가입이 어렵고 사전평가 신청이 어려우니 도와달라고 하여, 회원가입부터 사전평가 신청까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민자는 체류자격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무슨 서류를 준비하면 되는지 물어 '하이코리아' 접속방법과 숙련기능인력이 되는 안내문을 출력해 주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나는 방글라데시 사람이라 뱅골어와 한국어, 영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방글라데시 이민자들이 방문해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만, 타 국가 이민자들이 방문해도 한국어 및 영어로 대화가 가능하여 이민자들을 돕는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일요일,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가장 많은 문의 전화와 상담은 사회통합정보망 비밀번호를 잊어버려서 도움을 달라는 요청과 한국이민재단 홈페이지 로그인을 위한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기본소양평가 신청이 어렵게 되었다며 도움을 요청을 하는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나 역시 아이디 찾기와 비밀번호 찾기가 어려웠지만, 이제는 쉽게 찾을 수 있고 만약 전화번호 등이 바뀌어 비밀번호를 찾을 수 없는 경우 해결방법도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국사람들은 외국인 이민자들이 사회통합정보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왜 자주 잃어버리는지 그리고 본인이 왜 찾지 못하는지 답답해 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인터넷 환경에 익숙하지 않는 우리 이민자들은 아이디, 비밀번호를 잘 잃어 버리기도 하고 찾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자신이 찾다가 실수하면 안될 것 같은 두려움에 센터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센터로 찾아왔던 이민자들이 평일에도 전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움을 드렸지만 해결이 잘 안되면 평일 회사에서 제가 업무 중일 때도 전화해 부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니까 퇴근 후 이민자들에게 전화를 해 요청했던 문제를 해결해주기도 하고 주말에 센터에서 만나서 다시 해결하자고 이야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은 1365자원봉사 사이트를 통해 자신이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고 말한 이민자가 있어 회원가입도 시켜주고 있고 봉사활동 수요처를 찾는 방법과 봉사활동을 하는 방법을 안내해 주는 경우도 많이 늘었습니다. 아마 내가 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고 봉사활동에 참여하려는 이민자들이 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봉사활동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민자들이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어디로 가면 내 문제해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민자들의 어려움은 다양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내가 당한 어려움을 해결한 경험이 있는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민자통합센터는 그러한 조건이 맞아 이민자들이 많이 찾아오는 기관이며, 기관에 찾아오면 많은 이민자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기쁜마음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주변사람들에게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해 자주 홍보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아직까지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해 알지 못하는 이민자들이 많습니다. 일요일 조금이라도 쉬고 싶어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포기하는 친구도 있고 다른 일로 바빠서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했다 비자 만료일이 되면 대부분 후회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체류자격 변경이나 영주권, 국적취득을 하려고 할 때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는 4년 10개월 후 근무하다 본국에 돌아간 후 재입국 해야 했는데 법이 바뀌면서 10년을 한국에 머물 수 있어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주변 친구들에게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요일 아침 봉사활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저도 평일에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일요일 집에서 좀 더 쉬고 싶을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주 일요일 나를 손꼽아 기다리는 이민자들이 많기 때문에 오전10시까지 출근해 오후 늦은시간까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 이민자통합센터를 이용하게 된 이유도 한국에 거주하면서 공부도 하고 싶고 한국의 문화도 경험하고 싶었지만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몰랐는데 친구 하나가 '이민자통합센터'를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센터를 방문했더니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를 배울 수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알려주어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매주 일요일 하루 8시간 공부를 하였지만 지루하거나 수업이 부담되지 않았고 오히려 일요일 센터를 방문하여 공부하는 시간이 매우 좋았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먼저 수업을 진행하는 강사님의 열정과 따뜻함이 수업에 집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함께 수업을 듣는 다양한 국적의 이민자들과 관계가 형성되어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 한국사회 정착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한국사회를 경험할 수 있는 한국의 전통혼례, 지역탐방, 유명한 관광지를 다닐 수 있는 기회가 있어 함께 할 수 있었고 가장 외롭고 힘든시기에 이민자 통합센터를 만나 한국생활이 즐겁고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복을 나누기 위해 저는 매주 일요일 봉사활동을 선택했고 많은 친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고 즐겁습니다.

언어 천재

‘이웃집 소하기’

AKTER SOHAGI

국 적 대한민국

원국적 방글라데시

작성자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하기 선생님과의 첫 만남은 2020년 6월이었습니다. 소하기 선생님은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며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이민통합지원센터를 찾아왔습니다. 소하기 선생님께 이민자네트워크 가입신청서를 건네드리며,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한국어가 너무 유창했습니다. 소하기 선생님은 한국어와 모국어인 방글라데시어 외에도 영어, 인도어, 파키스탄어, 네팔어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언어 천재시네요!" 라고 칭찬하니, "아니에요. 그냥 방글라데시 언어랑 인도나 파키스탄 언어가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할 수 있는 것 뿐이에요."라며 겸손하게 웃으셨습니다.

KBS 이웃집찰스 – 소하기편, 방송 내용 중

소하기 선생님은 포천에서 남편과 함께 방글라데시 전통 음식점을 운영하며 두 딸을 키우고 있는데, 아이들이 학교와 유치원에 가고 나면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하루에도 몇백 명의 외국인들이 방문하는 출입국 민원실에서 외국어와 한국어에 능통한 이민자 자원봉사자들은 큰 도움이 됩니다. 소하기 선생님은 2020년 8월부터 양주출입국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한 후, 민원실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통역을 비롯하여, 은행 ATM기계에 외국인 등록증발급 수수료를 내는 법을 몰라 쩔쩔매는 외국인을 직접 도와주기도 하고,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등을 알려드리는 등 친절한 태도로 출입국을 방문한 민원인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주출입국을 몇 번 방문한 분 들 중에는

"오늘은 방글라데시 자원봉사 선생님 안 나오셨나요?" 라며 소하기 선생님을 찾기도 합니다.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이민자네트워크 회원들과 함께

2022년 1월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이 남양주 지역에 정착할 때도, 특별기여자분들과 아프가니스탄 언어로 소통이 어려워서 소하기 선생님께 통역이 가능한지 부탁하자, "아프가니스탄이 지역별로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서 제가 할 수 있는 언어가 통할지 모르겠지만, 번역기를 써서라도 도와드릴게요" 라며 흔쾌히 도움을 주셨습니다.

특별기여자분들이 남양주에 처음 이사 온 날, 소하기 선생님은 특별기여자분들과 함께 마트에 가서 한국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들을 알려주고, 지역 사회에 할랄푸드 마켓 등의 위치와 재활용 분리수거 배출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남양주 정착 아프간 특별기여자 통역– 마트(생필품구매) 동행

사실 소하기 선생님은 방글라데시에서 집안 어른들의 소개로 19살의 나이에 지금의 남편(방글라데시 출신으로 한국인으로 귀화)과 결혼해서 2010년도에 처음 한국에 왔습니다.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그렇듯이, 처음 한국에 와서는 문화와 음식, 언어 등이 너무나 달라 적응하는데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타국에서 어린 나이에 딸 2명을 낳아 기르면서 언어 소통도 안 되어서 외롭고 힘든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소하기 선생님은 빨리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 사회에 빨리 정착하고 싶다고 생각했고, 다문화센터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것 외에도 적극적으로 동네 주민들, 시장에서 만난 가게 아주머니들과 특유의 친화력으로 먼저 인사하고 한마디 한마디 한국어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노력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고 배움에 대한 노력까지 더하니, 어느덧 소하기 선생님은 여느 한국인과 한국어로 겨뤄도 지지 않을 만큼 유창한 한국어 실력을 쌓게 되었습니다.

소하기 선생님은 한국에서 이민자로서 한국어를 모르면 겪는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통역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외국인들도 어떻게 알았는지 소하기 선생님의 연락처를 알고 전화해서 도움을 청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2022년도에 포천에서 네 쌍둥이를 출산한 방글라데시 국적의 부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소하기 선생님은 한국어가 서툰 이들 부부의 옆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던 방글라데시인 부부는 한국에서 인공수정으로 네쌍둥이 출산에 성공했지만, 병원비와 아이 양육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아직 한국어도 서툴러서 어디서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할지도 정보를 얻을 수 없어 막막했습니다. 포천에 살고 있던 소하기 선생님은 이들 부부의 소식을 듣고, 통역을 도우면서도 보건소에서 유축기와 물티슈를 지원받아 전달해주고, 포천시에서 긴급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류 준비와 신청도 도왔습니다.

네쌍둥이 출산 방글라데시 부부 도움(언론 보도)

소하기 선생님은 이미 포천지역에서는 오랫동안 통역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는 포천시 보건소에서 외국인들의 '코로나19 백신접종' 통역 봉사도

하였습니다. 소하기 선생님은 오랜 시간 포천지역에서 봉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2년 '제20회 포천시민의 날' 행사에서 외국인 대표 자격으로 초대를 받아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소하기 선생님의 선행들은 방송국 작가들에게도 알려져서 방송 섭외 연락을 받고, 2022년 11월에 KBS '이웃집찰스-소하기편' 으로 방영되었습니다.

KBS 이웃집찰스 – 소하기편, 방송 내용 중

2022.11.22. 소하기 선생님의 '이웃집 찰스'가 방송된 날,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자원봉사자들의 단톡방은 이웃집찰스 시청 소감으로 시끌시끌 했습니다. "소하기 선생님, TV보다 실물이 더 예쁜데..", "가정의 행복한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어요."라며 소하기 선생님의 방송 출연을 모두들 한마음으로 기뻐해 주었습니다.

소하기 선생님에게 있어 2022년은 어느 때보다도 뜻깊은 해였습니다. 셋째 아이를 임신했고, 그토록 원하던 '한국 국적'을 취득했기 때문입니다. 소하기 선생님은 한국 사람보다도 한국어를 잘 하면서도, 국적 면접실에만 들어가면 너무 긴장되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한다면서 국적 면접에 불합격할 때마다 속상해했습니다. 소하기 선생님은 중학생 첫째 딸에게 귀화 면접 과외를 받으면서 열심히 준비한 끝에, 마침내 소원하던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소하기 선생님은 셋째 아이 출산을 위해 잠시 자원봉사 활동을 쉬면서도

"아기 낳고 빨리 돌아올게요. 계장님, 통역 필요한 일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하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면 도와드리고 싶어요."라며 특유의 봉사 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2023년 3월, 소하기 선생님으로부터 오랜만에 카톡이 왔습니다.
"우리 아들이에요. 예쁘죠?"라며 예쁜 아기 사진도 한 장 보내주셨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아기와 함께 양주출입국에 놀러오기로 했습니다.

제16회 세계인의 날
TOGETHER DAY

감자의 배면과 씨눈 중에
어떤 면이 하늘을 보는 것이
옳을까?

사단법인 한 방 울

국 적 대한민국

농사라는 것이 원래 뿌린 만큼 거두는 법입니다.
농사는 정직해서 열심히 일한 만큼 수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농업 국가라고 하기에는 국제사회에서 10위권에 있는 경제 대국 한국. 그리고 농업보다는 공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많은, 공업 도시의 대표 울산. 공업 도시라고 하면 삭막하고 뿌연 공해로 사람들 간에 정이 없어 보이고 기계화되어 보이지만, 이곳에도 사람의 온정이 느껴지는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외국인지원기관 사단법인 '한방울'의 '다문화가족 주말농장 활동'이 그것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자녀, 중도입국 청소년, 외국인 근로자, 국제결혼이주여성, 동포 가족, 재한외국인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자의 자녀, 그리고 국민(선주민)이 함께 교류하면서 활동하는 이 주말농장은 다문화가족들의 소통 창구입니다. 서로 같이 어울리며, 육아에 대한 고충을 나누기도 하고, 한국 생활 적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도 합니다. 농장 활동은 농사와 대화, 그리고 나눔을 통해 서로의 공통점을 찾으면서 이민자와 선주민이 화합하고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감자 심기 관련 사진들

이른 봄에 감자 파종을 위해 감자 씨눈 자르기를 하면서 늘 참여자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감자의 자른 면(배면)과 씨눈 중에 어느 쪽이 하늘을 보도록 심어야 할까?'

혹시 고민해본 적 있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면 이민자와 선주민, 그리고 그들의 자녀는 모두 생각에 잠깁니다. 어떤 방법이 옳은 것일까? 아무도 답을 말하지 못하는 시간이 계속되고, 서로 누군가 답을 말하기를 기대하며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얘들아~ 첫 번째 고랑은 감자 씨눈이 하늘을 보도록 심고, 두 번째 고랑은 감자 씨눈 자른 면이 하늘을 보도록 심어 보자. 그러고 난 후 2주~4주 지난 후의 상태를 보면 어떨까? "

하니 모두가 일심동체로 좋아요~~~

"2~4주 후에 결과를 보고 그동안의 생각을 그림일기에 써보는 거야. 정답은 2~4주 후에 자연이 알려 주는 것이지만 오늘 참가한 우리들의 생각도 그려 보자."

첫 번째 고랑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봐요.
두 번째 고랑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봐요.
나름 각자의 생각을 그림일기에 체험과 함께 기록합시다.

이렇게 시작한 봄 감자 심기는 여름이 다가오는 6월 말 ~ 7월 초면 수확을 합니다. 모두 스스로가 감자 씨앗의 눈을 자르고 파종 후 물을 주면서 감자를 성장하게 하고 전 과정을 그림일기에 기록하게 되죠. 그런 과정을 통해 공통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은 점점 하나가 됩니다. 피부색이 달라도, 언어, 종교가 달라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친구가 되고

자연의 신비함에 감탄하고 감명받습니다. 이렇게 직접 재배하고 수확한 감자는 다 함께 둘러앉아 삶아 먹고 다문화가족 200여 가정에도 나눠줍니다.

'다문화가족 주말농장'에서는 감자 외에도 11월에 있을 김장을 목표로 여러 작물을 기릅니다. 김장을 위한 대표 작물로는 고추, 무, 배추가 있습니다. 고추는 수확 건조하여 김장용으로 밀봉해서 보관합니다. 무와 배추는 감자와 고추를 수확한 자리에 파종하여 정성스럽게 가꿉니다. 11월에 자급자족한 무, 배추, 고춧가루로 김장 만들기를 진행합니다.

김장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첫째 날, 다문화 주말농장에서 무, 배추 등을 수확하여 남구문화원 뒷마당으로 이동 후 다듬기를 하여 소금에 절입니다. 둘째 날, 어제 절인 배추와 무를 뒤집어 골고루 절여지도록 하며, 김치의 속에 들어갈 양념을 만듭니다. 셋째 날, 다문화가족과 선주민을 비롯한 내빈들까지 함께 참석하여 신나게 김치를 버무립니다.

이렇게 자급자족한 재료로 만든 김장김치를 참여자는 물론 250~300여 명의 이민자 가족들에게 나누어 준 지 벌써 10년이 되어 갑니다. 농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힘들게 지은 농작물을 기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이 과정이 이민자와 선주민을 서로 이어준다고 생각하기에 '다문화가족 주말농장'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장관련 사진

농사를 누구는 잘 알고 짓지만, 누구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농작물을 잘 심지 못했습니다. 언제 무엇을 심어야 하는지도 몰랐고, 심어 놓고도 관리를 못 해서 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했던가요. 처음에는 자기 농작물만 관리하던 분들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다 같이 오늘 오지 못한 사람의 농작물도 관리해 주고,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누구는 오늘 저번에 그거 잘했데~?'하며 여러 안부를 묻습니다. 농작물에 대해 사소한 것도 관찰하여 하나하나 기록하고 그려 보는 활동을 통해 자녀들도 자신이 아닌 다른 대상을 아껴주고, 보듬는 법을 배웁니다. 처음에는 참여 가구가 몇 안 되었는데, 점점 많아져 어느덧 두 번째 농장까지 생겼습니다.

농작물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자란다고 합니다. 농작물이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선 제때 알맞은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하고 햇빛, 바람, 온도, 습도를 맞춰줘야 하기에 애정을 가지고 자주 들여다봐야 한다는 의미죠. 우리의 이웃으로 정착하기 위해 애쓰는 이민자들을 선주민은 농작물의 주인, 농부와 같은 마음으로 임한다면 중도입국 청소년과 이민자의 자녀, 그리고 선주민의 자녀가 함께 아름다운 무지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감자를 심을 적에 감자의 씨눈과 배면 중에 어떤 면이 하늘을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씨눈 쪽 골이 먼저 세상 밖으로,
배면 쪽 골은 둘러서 세상 밖으로 나오기에 좀 늦을 뿐입니다.
우리 사람도 다름과 늦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제16회 세계인의 날
TOGETHER DAY

한 아이 이야기

김 미 향

국 적 대한민국

원국적 태국

한 10대 태국 소녀가 있었다. 아이는 여느 아이들과 같이 평범한 생활을 보내고 있었다. 어느 날 라디오를 통해 들려온 한국 아이돌 '세븐'의 '와줘'라는 노랫가락은 아이를 순식간에 사로잡았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인지한 순간이었다. 처음 의미도 모른 채 라디오로 세븐의 노래를 들으며 웃던 아이는 새삼 낯선 언어의 의미가 궁금해졌고, 스스로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인터넷이 원활하지 않았기에 라디오에 의지한 채 한국 드라마와 한국 음악을 듣기 시작했다. 의미도 잘 알지 못하는 노랫가락 한 소절, 드라마 대사 한 소절이었지만, 한국의 문화는 소리 없이 그 아이의 인생을 순식간에 휘감아갔다. 한국어를 공부하기 위해 한국 드라마와 음악을 들을수록 한국문화에 푹 빠지게 되었고, 한국문화에 녹아들수록 그 아이는 '한국'이란 나라가 궁금해졌다. 그때부터 한국에 가고 싶다는 열망은 아이의 마음속에 조금씩 뿌리를 내렸고, 한국에서 먹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해보고 싶은 것의 소망 목록이 깨알같이 쌓여갔다. 그렇게 문화는 가깝지만, 실제 거리는 멀기만 한 한국에 대한 환상과 함께 아이의 10대는 지나가고 있었다.

어린시절

간절하다면 이뤄진다고 했던가, 한국에 갈 기회를 찾아 헤매던 20대 아이에게 EPS(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갈 기회가 주어졌다. 최종 한국어 시험을 통과하고 드디어 고대하던 한국으로의 비행이 시작되었다. 비행하는 동안 아이는 여러 꿈을 꾸며 참 설레었다. 드라마에 나온 한국 음식들도 먹고, 관광지역에 찾아가서 역사도 배우고 많은 추억을 만들고 싶었다. 상상만으로도 신이 났다. 그러나, '20대 외국인 여성 근로자'라는 신분은 쉬이 감당할만한 것이 아니었고, 고향에서 멀리 혼자 와서 타국에서 사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았다. 독학으로 공부했던 한국어로는 원활한 소통을 할 수가 없었고, 태국과는 다른 낯선 날씨와 고향과 완전히 다른 맛을 내는 음식은 저절로

향수병을 불러일으켰다. 한국 드라마를 통해 익숙하다고 생각한 여러 한국문화는 직접 겪어보니 낯설기만 했다. 농장에서 일을 시작하자 적응은 더 어려워졌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는 아이와 전혀 맞지 않았고 그 문화 때문에 사회생활은 더 어려워지기만 했다. 일을 시작한 지 3개월, 아이는 너무나도 집에 가고 싶어졌다. 그렇게 오고 싶었고 설레던 한국이었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다른 환경에 놓이자 혼자 오지에 있는 것처럼 한국이… 두려워졌다.

외국인지원센터 활동 사진

고향으로 돌아갈지 계속 머무를지, 불안감 속에 망설이고 있을 무렵 아이에게 닿은 따뜻한 손길이 있었다. 그 손길을 현재까지도 아이는 잊지 못한다. 그 친구는 같은 고향에서 온 직장 동료였는데 언제나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주며 아이를 응원해주었다. 그 친구 덕에 교회도 다니면서 좋으신 분들을 많이 알게 되었고, 그분들은 그저 조용히 아이를 격려해주었기에 아이는 조금씩 한국에 적응할 힘을 다시 낼 수 있었다. 이제 와 생각해보면 아이에게는 터놓고 기댈 수 있는 마음의 언덕이 필요했었던 건 아닐까.

시간이 지나 하얀 눈이 날리는 계절, 겨울이 왔다. 봄에 한국에 도착했던 아이는 계절이 세 번 바뀌고도 한국에서 살아남았다. 마음에 여유가 생겼는지 태국과 다른 날씨에도 더는 표정이 찡그려지지 않는다. 아이의 고향은 눈이 없는 나라였기에, 하늘에서 하얀 눈이 내려 땅바닥에 소복이 쌓이는 광경이 신기하기만 했다. 한국 지도를 펼쳐 들고 묻어뒀던 위시리스트를 꺼내 들었다. 남산타워, 명동, 동대문, 경복궁, 남이섬, 민속촌, 에버랜드…… 재미있고 즐거운 추억이 쌓여가고 쉼 없이 시간은 흐른다. 직장은

농장일에서 벗어나 공장일로 바뀌었고 여유가 생겨서인지 사랑하는 남편도 만나 가정도 이루었다. 아이의 체류자격은 이제 근로자에서 결혼이민자다. '그 아이'에서 '그녀'가 된 얼굴에 행복의 미소가 끊임없이 흐른다.

결혼식 사진

결혼식 사진

물론, 결혼 준비가 쉬웠던 것은 아니다. 그녀는 한국인 배우자를 만나 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 본 적 없었을뿐더러, 한국에서의 결혼생활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했더랬다. 그때 많은 도움을 준 프로그램이 사회통합프로그램이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에서 살기 위해 알아야 하는 상식들이나 법들을 배우게 되었고, 한국 결혼생활도 간접적으로 알게 되었다. 쉬운 내용부터 어려운 내용까지 단계별로 설계되어 있어 이해하기가 쉬웠다. 한국어는 물론 한국문화·법 등 한국 생활의 전반을 알고 싶다면 꼭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들어보길 추천한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듣고 난 후 그녀에게는 새로운 꿈이 생겼다. 바로 '한국어 선생님'이다. 그런데 한국어 선생님은 누구나 될 수 없었고, 한국어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녀는 아직 능력이 부족한 거 같았다.

그래도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녀는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길 좋아했고, 초기 한국에서 생활하던 자신과 같이 말이 통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다. 처음에는 같은 외국인 친구들이 병원이나 은행에 갈 때, 회사에서 사장님과 소통이 잘 안돼 힘들어할 때 통역하는 일을 했다. 그러다가 2020년~2022년 코로나가 심각했을 때에는 몸도 아프면서 진료받는 것도 잘 모르는 외국인 친구들을 외면할 수 없어 어떻게든 시간을 내어 도와주려 발 벗고 나섰다. 회사 일과 병행하기가 쉽지는 않았지만 어떻게든 시간을 내어 그녀를 부르는 곳에 뛰어가곤 했고, 자신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아 코로나를 털고 일어나는 친구들을 보면 그렇게 기쁘고 뿌듯할 수 없었다. 그러다 보니 외국인지원센터 기관인 '(사)외국인과 동행'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이 "그동안 통역해줘서 정말 고맙다."라며 전화도 주시고, 경주시장에게 해당 일로 표창패를 수여받는 영예를 얻기도 했다. 그녀에게는 아주 큰 의미였다.

외국인지원센터 활동 사진

그리고 그녀는 작년 겨울, 꿈을 향한 걸음을 한 발짝 더 내디뎠다. 2022.12.13. 한국인이 된 것이다. 그날 그녀는 엄숙하고도 진지하게 국민선서를 낭독했다.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민의 의무를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표창패 사진

외국인지원센터 활동 사진

그녀는 이 선서를 지켜낼 것이다. 더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자신과 다짐했다. '한국어 선생님'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일들도 더 많이 할 것이다. 한 아이가 그녀가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수 있음에 감사한다. 이 글을 읽는 분들도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힘내시고 잘 해결되시기 바란다. 여러분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성장하고 성숙해질 것이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 힘이 되면 좋겠다. 마음으로 응원을 하며 이야기를 마친다.

제16회 세계인의 날
TOGETHER DAY

응웬민응옥씨의

한국유학생활 적응기

NGUYEN MINH NGOC

국 적 베트남

안녕하세요. 베트남 최대의 항구도시 하이퐁에서 태어나서 성장한, 한국 거주 8년 차 응웬민응옥이라고 합니다. 살면서 한 나라의 문화에 매료되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나라의 언어를 독학한 적은? 혹은 그 나라가 너무나도 궁금하여 유학길에 오른 적은요?

저는 어려서부터 음악과 드라마 등을 통해 한국문화를 접하면서 한국에 대한 매력을 느끼게 되었고, 고등학생 때는 한국에 대한 호기심으로 한국어를 독학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를 조금씩 스스로 깨우치면서 한국문화에 점점 매료되었고, 그래서 한국에 언젠가 꼭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대학교에서 IT 전공으로 졸업 후 한국에서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찾고 한국어를 더 깊이 배우고자 한국으로 유학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경영학부에 편입학 지원을 하였고, 합격 통지서를 받으면서 제 인생은 한국에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한국 대학교 생활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가장 힘들었던 점은 바로 의사소통이었습니다. 교과서를 통해 공부했던 표준어와 달리 일상생활에 쓰이는 언어가 매우 달랐습니다. 특히 대학교가 경주에 있다 보니 지역마다 독특한 사투리와 특정한 억양이 있어서 그 지방의 현지인들과 대화할 때 어려웠고, 서로 오해하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또한, 한국과 베트남 두 나라 간의 떨어진 거리만큼 문화 차이도 분명히 존재해서 한국문화에 적응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그 차이가 막막한 장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당시 동국대학교 경영학부 지도교수님이신 이영찬 교수님께서 유학생을 위해 알려주신 여러 프로그램 중 사회통합프로그램이 눈에 들어왔고, 호기심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저는 여러 나라에서 온 외국 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한국어 능력도 좋아지고 한국의 경제, 사회, 법률, 역사 등 다양한 분야를 무료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덕분에 한국 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었고, 대학교 졸업 이후 비자를 변경할 때도 많은 도움을 받게 될 줄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한국 대학교 생활

학부생 당시 지도 교수님과 친구들로부터 신뢰를 얻은 덕분에 국제교류처에서 근로 장학생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국제교류처에서 근무하는 동안 유학생에 관한 입학 지원, 비자 연장, 의료보험 등 유학생 관리 업무 보조를 담당하는 한편 유학생들이 한국 일상생활 중 부딪히게 되는 어려움이나 고충을 상담해주기도 했습니다. 제가 비록 한국어도 서툴고 전문성도 부족하지만, 저의 선 경험을 바탕으로 재학 중인 유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을 늘 간직하며 생활해 왔습니다.

한국 대학교 생활

한국 대학교 생활

한국 대학원 생활

한국 대학원 생활

사실 저는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유학생활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 번도 멈춰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오랫동안 꾸준히 하면서 성실함과 책임감을 배웠고 한결같은 저의 모습을 많은 한국인분들이 칭찬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에 오시는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와 만남을 통해 한국인들의 생각, 행동 양식, 의사소통 방법 등에 대해 많이 배우고 경험하게 된 것이 제가 한국에서 얻은 가장 소중한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20년에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경영학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나서 저는 2020년 1학기에 대학원 글로벌비즈니스 전공 석사과정에 진학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동국대학교가 교육 방식을 대면에서 비대면 수업으로 변경하게 되어 새로운 수업환경에 적응하는 데 한국 학생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대학원 지도교수님의 응원과 조언 덕분에 힘든 코로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한국어를 공부하여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에 합격하게

한국 대학원 생활

되었습니다. 또한, 지도교수님의 세심한 논문지도 덕분에 석사학위청구 논문이 심사위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고, 이후 해외학술논문(SSCI)에 제출하여 어려운 심사를 통과, 곧 출판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대학원 졸업 후에는 글로벌비즈니스 전공과 한국어 능력을 살려서 무엇인가 나만의 일을 해보겠다는 결심을 하였고 F2 비자를 받은 후 의욕적인 마음으로 한국의 수도인 서울의 IT 대기업에 취업했습니다. 3개월 인턴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우수인력 인증을 받아 정규직원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대학원 생활

서울의IT기업 취직

한국에서 8년 넘게 살고 있고, 안정된 직장에서 일도 하고 있다 보니 이곳은 제2의 고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오래오래 정착하고 살기를 희망합니다. 한국은 생활환경, 근무조건, 복지 등이 잘되어 있어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유학비자(D-2)에서 거주 비자(F-2) 자격으로 변경하여 현재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훨씬 더 노력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곤 합니다. 3년 후에는 영주권(F-5) 비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영주권 조건을 서서히 준비해나갈 생각입니다.

지금의 저를 있게 한 지도교수님이자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이영찬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비록 외국인 제자이지만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러운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늘 찾아 온다

도티떠이
DO THI TAY

국 적 베트남

올해는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지 9년 차가 된다.
남편이랑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이 되는 8살 예쁜 딸이랑 같이 살고 있다.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말과 한국문화를 전혀 몰랐다. 한국드라마를 통해 '연예인들이 멋있고 사계절 뚜렷한 날씨, 겨울철에는 눈이 오니까 하얀 세상을 느끼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다. 한 번이라도 한국에 가서 실제로 눈을 구경하고 싶었다.

2015년에 한국에 먼저 결혼하러 온 조카를 통해 남편을 소개를 받고 결혼하게 되었다.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서 우리는 사전을 보고 몸짓을 섞어 설명해서 대화하니까 너무 웃겼다.

남편이 한국에 먼저 가고 나는 베트남에서 한국어를 배웠다. 2016년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겨우 21살이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였고,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 남편이랑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다.

하나씩 조금씩 배웠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제일 힘든 것이 의사소통이였다. 남편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들었고 내가 억울한 일이 있었고, 남편과 대화를 나누고 싶지만 한국말을 모르니까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다. 참고 참기만 했다.

게다가 남편의 직업이 어부였기 때문에 한번 배를 타고 나가면 한 달쯤 있다 들어온다. 그래서 남편은 거의 집안일을 도와주지 못했다. 시댁식구도 없는 바람에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 대부분 내가 모든 일을 해야 해서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한국말을 잘 배워야겠다 결심해서 다문화가족센터에 가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기 시작했다. 거기에서 친구들을 만나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우울하지 않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한국에 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임신하게 되었다. 임신소식을 들을 때 기쁨 반 걱정 반을 느꼈다. 왜냐하면 아이가 있으면 내가 심심하지 않겠지만 한국에 온 지 얼마 안됐는데 아이를 앞으로 어떻게 키울지 걱정했다.

그래도 임신하니까 '나는 혼자가 아니다. 엄마가 돼서 책임감이 생겨서 어른스러워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며, 임신한 상태로 다문화가족센터에서 계속 한국어를 공부했다.

아이를 낳고 나서는 육아를 하느라 공부하러 다문화센터에 다니지 못했다.

시간이 흘러서 아기가 2살이 되었을 때 어린이집을 보내고 나서 일을 다니기 시작했다. 한국어는 서툴고 아기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시간이 짧아서 식당밖에 못 다녔다.

식당에 다니면서 한국말을 모르니까 손님들이 뭔 말하는지 알아듣지 못해서 너무 답답했다. 그리고 아기가 아플 때마다 병원에 다닐 때도 의사선생님과 상담을 못 해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답답했던 날들이 있었다.

그래서 마음먹고 한국어를 제대로 배워야 한국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식당에 다니면서는 센터에 와서 공부를 못하지만 한국어 방문교육을 신청해서 공부할 수 있었다.

센터에서 보내준 선생님은 나이가 좀 있지만 너무 친절하고 다정하게 보였고 실제로도 나에게 살뜰히 다해줬다. 한국어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한국생활까지 잘 알려줬다. 궁금한 것이 있을 때마다 선생님에게 물어보면 조언 해줬다.

내가 열심히 일을 다니면서 한국어도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특하다고 하시며 정해진 교재 외에 다른 교재까지 구매해줘서 아낌없이 가르쳐줬다.

선생님이랑 공부한 1년 정도 되다가 방문교육 서비스가 종료되어 너무 아쉬웠지만 어떤 만남이든 끝이 있는 법이라고 생각해서 슬픔을 참았다. 1년 동안 선생님 덕분에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많이 배울 수 있었다. 지금은 어떤 상황에도 소심하지 않고 자신감 있게 대화를 할 수 있다.

선생님과 자주 뵙지 못하지만 가끔 전화하여 안부를 묻고 지내고 있다. 평생 나는 선생님께 고마워하며 선생님을 생각하고 살고 있다.
방문교육이 끝나고 더 공부하고 싶어서 2019년 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야간 토픽반에 신청하여 열심히 공부했더니 한국어능력시험 4급을 받았다.

그리고 2020년에 지역가족센터에서 베트남어 통번역지원사로 취직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도 나에게 소중한 인연들을 만났다. 센터에서 근무하면서 너무 기쁘고 동료들도 잘해주고 너무 행복했다. 그동안 내가 배웠던 것이 센터의 통번역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어 어느덧 내 자존감이 높아졌다.

베트남 초기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내 할 일을 다 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했다. 일을 하다 보니 예전 내 모습을 떠올리며 동감하고 점점 이 직업을 사랑하게 되었다. 다른 사람에게 나의 경험을 들려주고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기뻤고 같이 웃고 같이 울고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지역가족센터 활동사진

일하면서 가족봉사단에 신청하여 주말에 아기랑 가족봉사단에 꾸준히 참석하고 있다. 봉사하면서 환경을 깨끗하게 하려고 쓰레기를 줍고 다녔고 하다 보니 이런 봉사가 더 많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봉사하는 모습을 아기한테 자꾸 보여줘야 우리 아기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지금은 방송대학교 유아교육학과에 3년째 재학하고 있다. 처음에는 '내가 왜 유아교육과를 공부하지, 학과를 잘못 선택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했지만 공부하다 보니 아기를 키우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다.

가족봉사단 활동사진

초기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생활에 가족들과 말도 통하지 않아 답답해하는 것을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있다. 내가 겪은 한국생활과, 아기를 키우면서 공부했던 것에 대해 결혼이주여성들에게 내 경험을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기분이 너무 좋았다. '공부라는 것은 쓸데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동남아 국가 출신이라고 차별받는 사람들, 구박을 받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 한국에 살면서 '이런 힘든 일들이 결혼이주여성들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베트남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이런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국 사람도 우리들과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멋있는 통번역사가 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하겠다는 결심을 하며, 내가 있는 곳에서 누구든 힘든 일을 겪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음을 나는 믿는다.

지역가족센터 활동사진

제16회 세계인의 날
TOGETHER DAY

한국에서 만난 새로운 나!

엄마는 힘차게 달린다!!

김 선 미

국 적 대한민국

원국적 베트남

"회장님, 세계인의 날 기념해서 미담 사례 좀 써 주실 수 있어요?"

제주 출입국외국인청 담당자의 전화를 받고는 너무 부담스러워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회를 통해 이주민들이 사회참여가 많아지고 나아가 정부의 정책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좋은 취지라는 말에 용기를 내보려 합니다.

아, 막상 타이핑을 치려고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 어느덧 한국에 온 지도 1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는 사실에 웃음이 나옵니다. 낯설고 두려운 10월 제주 바람은, 스물네살 45kg 나의 몸을 한번에 날려 보낼 만큼 세찼던 날이었습니다. 남편의 따뜻한 손은 공항에서 집 앞까지가 마지막이었지요.

"아, 겨울연가의 배용준을 고소하고 싶습니다. "

결혼 전 언니가 있는 홍콩에서 지내며 시청했던, '겨울연가'의 낭만과 열정적인 사랑, 하얀 눈 속의 아름다운 낭만들.... 저에겐 완벽한 사기입니다.

남편의 반복되는 늦은 귀가, 시어머니 이해할 수 없는 잔소리, 정체를 알 수 없는 음식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선생님에게 사랑을 독차지하고, 식사때마다 맛난 음식과 과일을 먹으며 1시간여 수다 떨던 베트남 소녀는 점점 시들어만 갔습니다.

2009년 어느 정도 한국어를 말할 수 있게 되자, 다문화가족센터에서 통역을 부탁해 왔습니다. 한국 남성과 결혼한 베트남 동포가 어려움을 겪는 사연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여성들이 많다는 것을 통역을 하며 알게 되었습니다. 아주 유창한 한국어 실력이 아니었지만 저의 통역으로 부부의 오해가 풀리기도 하고 때론 화해하는 모습을 만나며 좀 더 한국어를 열심히 배워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포들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3년부터는 다양한 한국문화를 접할 기회를 늘리려고, 다문화소방대, 외국인 자율방범대 등 자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봉사활동은 오히려 저를 성장시켰고 제 삶을 풍요롭게 해주었습니다. 꼭 베트남 동포만이 아닌 지역사회의 문제점은 곳곳에 산재해 있었고 누구나 해야 할 일이 많으며, 저 역시 이 사회에 쓰임새 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사회 활동사진들

그동안 제주시 다문화센터, 이주민센터에서 통·번역 업무를 했고 학교에서 다문화 강사로도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다른 사회활동을 하면서 여전히 내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고향 사람들이 곤경에 처했을 때 돕는 방법에 대해 더 배우고자, 2017년에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공부를 시작해 자격을 받았습니다. 학교생활이 끝나면서 제주 출입국·외국인청 민원실에서 자원봉사 활동, 주말이나 저녁에는 경찰이나 다문화소방대에서 계속 활동하였습니다.

출입국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의 출입국 관련 업무는 사례마다 다르고, 요구 사항들도 각양각색입니다. 처음엔 힘들고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부딪히고 배우고 상대방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니, “고맙습니다.”라고 깍듯하게 인사하는 동포들을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베트남과 다르게 기관 문턱이 높지 않고 뇌물이나 힘 있는 사람, 빽이 없어도, 통역까지 도와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민원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이 환한 표정으로 돌아서는 모습에서 나도 모르게 행복해집니다.

지역가족센터 활동사진

2021년 코로나19로 세상이 회색빛일 때도, 제14회 세계인의 날을 기념해 한경면 고산에서 마늘 뽑기 일손을 돕기도 하였습니다. 정말 많은 이주 친구들이 마스크를 쓰고 참여해 주었습니다. 제주외국인청 소속지원, 사회통합자원봉사위원 및 이민자네트워크회원 약 30명이 어르신들만 남겨진 고산리 마늘을 힘차게 뽑아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빵을 만들어 취약계층에 전달하였고, 외국인 방범대는 제주서부경찰과 동부경찰서를 순찰활동도 참석하며 저를 필요로 하는 봉사활동은 항상 우선하여 모두 참석하려고 합니다.

2019년 12월 제주이주여성상담소가 전국 다섯 번째로 개소하며 새로운 직장이 되었고, 이제 전문상담원의 직업으로 이주여성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주여성들이 한국으로 시집와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더 많은 가족이 사랑과 신뢰로 잘 사겠지만 상담소에서 만나는 친구들은 한국에 조금 먼저 온 저의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저의 작은 도움으로 이들이 서로 오해를 풀고 웃으며 상담소 문을 나서는 모습만큼 저를 행복하고 보람차게 하는 일이 있을까요...

큰딸이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갔을 때 아이가 가족 소개를 했고 특히 엄마의 직업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친구들이 많이 놀랐다고 합니다. 집에 귀가한 아이가 “우리 엄마 최고!”라며 안길 때 전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을 준, 한국은 저의 제2의 고향입니다. 이곳을 너무 사랑하고 나와 소중한 세 딸을 위해 헌신하고 싶습니다. 나를 사랑해주시고 자신감을 주시고 어려울 때 항상 도와주신 친구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가족과 동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미숙한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국민 한국 생활 적응 도우미

김 성 미

국 적 대한민국

원국적 캄보디아

2007년에 한국에 결혼이민자로 오게 되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한국 사람과 소통도 안 되고, 외국 사람이라는 편견이 있어서 외롭고 힘들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한국생활에 잘 적응해 내겠다고 결심했다.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공부를 해야 했다.

겨울 감귤농사철에는 감귤농장일과 선과장일을 해야 해서 새벽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였다. 공부할 시간이 부족했다.

나에게 한국어를 공부할 시간은 귤 농사가 없는 여름뿐이었다.
여름에는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찾아다녔다.

여름에 낮에는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공부도 하며 방문교육 선생님을 찾는 등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열심히 공부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들을 수 없는 농사철에는 같이 농사를 도와주시는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최대한 한국어를 많이 접하려고 노력했다.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한 결과 2011년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고, 2012년 세쌍둥이를 출산하였다.

양가 부모의 도움 없이 키우면서 힘들 때도 많았지만 틈틈이 한국어 공부를 하려고 노력했다.

아이들이 다섯 살 정도 되고 어린이집에 적응을 잘 하고 나니 나에게도 기회가 왔다.

지인의 소개로 2018년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통역지원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캄보디아 사람들이 한국 생활을 하며 겪는 문제들을 보니 남 일 같지 않았다. 10년 전의 나를 보는 것 같았다.

한국에 오신 캄보디아 근로자나 결혼이민자들의 고충을 들으면 처음 내가 한국에 왔을 때가 생각나 더 열심히 하게 된다.

통역으로 문제가 해결되면 마음이 편해지고 뿌듯하다. 하지만 통역 지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캄보디아 분들의 문제를 보면 마음이 답답하고 안쓰럽다.

앞으로 캄보디아 이민자들이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해가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열심히 하고 싶었다.그러던 중, 기존에 있던 캄보디아 자조모임의 총무가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총무의 업무를 맡을 사람이 필요했다. 작년에 캄보디아 자조모임 총무 제의가 들어와서 하게 되었다.

캄보디아 자조모임 활동사진

우리는 제주도에 있는 캄보디아 사람들이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통역봉사나, 행사 등을 개최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들이 병원 방문 시 동행하여 통역을 진행하며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2022년에는 캄보디아 설날 모임 행사를 준비하고 실시하였다. 200명이 넘는 캄보디아 사람이 모이면서 많은 캄보디아 사람들이 축제를 즐겼다. 올해 3월에도 캄보디아 설날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현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캄보디아 자조모임 활동사진

캄보디아 자조모임 활동사진

제주도에 거주하는 근로자, 결혼이민자 등 여러 캄보디아 이주민들이 모여 한국 생활하면서 힘든 점이나 좋은 점을 이야기하며 스트레스도 풀고, 축제를 즐길 예정이다. 제주도에 거주하는 캄보디아 사람들이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도움이 되고 싶다.

제16회 세계인의 날
TOGETHER DAY

한국 사람은

저의 '이웃사촌'입니다

BADIROV
SHUKURILLO

국 적 러시아

한국어에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까이 이웃하여 사는 사람이 친족 관계인 사촌과도 같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2003년 한국 땅을 처음 밟았을 때 어머니가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한국에서 원단을 수입해 키르기스스탄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셨습니다. 섬유산업이 발달한 한국의 원단은 전 세계에 품질이 좋기로 소문이 났기 때문에 키르기스스탄에서도 불티나게 팔릴 정도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뒤를 이어 원단 사업을 해보고 싶은 저는 한국의 사업 파트너를 소개받기 위해 단기방문비자(C3)를 얻어 2003년 처음 한국에 왔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한국 사람들을 사업 파트너가 아니라 이웃사촌으로 생각해야 한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말에도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기에 저는 한국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라는 당부의 말씀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키르기스스탄과 한국을 오고 가면서 어머니께 원단 사업을 배우다가 저만의 사업을 해보고 싶어서 2010년에 한국에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인천에서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일을 했는데 제가 열정을 가지고 도전한 첫 사업은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사업 파트너가 수시로 바뀌었고 잘못 작성한 계약서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일도 적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질수록 저의 마음도 조금씩 타들어 가기 시작했고 마침내 사업 파트너로 만나는 사람들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한국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반대로 한국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면서 몇 년을 버티다가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키르기스스탄으로 되돌아가려고 사업을 정리하고 있을 때 멀리 논산에서 우즈베키스탄 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분이 연락해 왔습니다. 체류 기간이 만료되어 귀국해야 하는데 식당을 인수할 사람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자신감이 없었던 저는 일단 여행 삼아 논산을 찾았습니다. 식당 사장님은 그동안 사업하느라 고생이 많았다며 손수 음식을 차려주고 손님으로 오는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사람들과 며칠을 지내는 동안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이웃사촌'이라는 말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의지할 곳 없는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이웃사촌'이 아닌 사업 파트너만 만나고 다닌 내 자신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사촌을 만들어 보자!' 용기를 내어 가지고 있던 돈과 어머니께 빌린 돈을 모두 투자해서 2018년 우즈베키스탄 식당을 인수했습니다.

논산에 살면서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은 식당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반갑게 맞아주고 힘든 노동으로 지친 그들에게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한국 생활에서 익힌 한국어로 통역도 해주고 임금체불 문제, 병원 치료 등 작고 큰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이웃사촌'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식당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무슬림을 위한 식료품 가게도 새로 차릴 수 있게 되었고, 저의 한국 생활은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논산에 체류하고 있는 중앙아시아의 사람들과 '이웃사촌'으로 지낼 수 있게 되자 이제 한국 사람들과 '이웃사촌'이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가 200만 명을 훌쩍 넘어 다문화 사회가 되었어도 외국인 결혼이민자와 근로자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따가웠습니다. 특히 저와 같이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은 천덕꾸러기만 같은 존재였습니다.

저는 '논산시 무슬림 공동체'를 만들어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활동을 펼쳐 나갔습니다. 저는 먼저 논산의 무슬림 예배소를 중심으로 우즈베키스탄부터 아프가니스탄에 이르기까지 많은 무슬림의 대표로서 한국 사람들과 무슬림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2022년 충남연구원에서 주최한 '충남신남방교류회' 제2차 세미나에서 '충남 거주 무슬림의 식생활 현황'에 대해 발표함

조기 축구회를 만들어 매주 함께 공을 차며 친목을 다지고, 아동 양육 시설인 '논산애육원'을 찾아 후원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논산경찰서와 외국인들의 불법체류,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협업도 이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무슬림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없애기 위해 충남 지역의 무슬림을 대표해서 충남연구원이 주최한 교류 세미나에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활동 중에서 특히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있던 시기에는 논산의 방역을 담당하는 논산시보건소와 논산경찰서에 '덕분에' 감사 이벤트를 실시해서 우리 외국인도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한국 사람들의 '이웃사촌'이라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러한 논산시 무슬림 공동체의 활동은 지역 신문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개됨으로써 무슬림에 대한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2020년 논산시 무슬림 공동체 대표로 코로나19 방역에 힘쓰고 있는 논산시보건소와 논산경찰서 관계자를 찾아 '덕분에' 감사이벤트를 개최함

논산경찰서가 개최한 '2020 외사·치안활동 피드백 위한 인플루언서 간담회' 참석하여 무슬림에 대한 인식개선과 범죄예방에 대해 의견을 제시함

어려움을 겪을 때 '가까운 이웃이 먼 사촌보다 낫다'라는 말처럼 이제는 한국 사람들과 '이웃사촌'을 뛰어넘어 하나의 가족 공동체가 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합니다. 이렇게 한국 생활에 자신감을 갖게 되자 영주권(F5) 취득이나, 가능하다면 귀화해서 영원히 한국에 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시행하고 있는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가해서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거주비자(F2)를 받게 되었고 고향에 있는 아내와 아이들을 한국으로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과 중학생인 아들, 딸은 저의 바람과는 달리 한국 생활에 쉽게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는 한국의 뜨거운 교육열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도 아이들의 학교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때 학교의 선생님들과 학부모님의 도움이 컸습니다. 그분들은 이중언어 강사님을 소개해 주는 등 아이들이 학교와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친절한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아이들의 표정도 점차 밝아지기 시작했고 한국 친구들도 제법 많아졌습니다.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어머니가 저에게 하셨던 말씀을 아이들에게 들려줍니다. 바로 "한국 사람들은 너희들의 이웃사촌이란다."라고 말이지요. 저의 아이들도 저처럼 한국에 살면서 '이웃사촌'이라는 말의 참뜻을 알게 될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그렇기에 한국 사람들과 이웃하며 동고동락하는 생활이 즐겁습니다. 앞으로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의 곁에서 따뜻한 '이웃사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아동 양육 시설인 사회복지법인 '논산애육원'을 찾아
후원 물품을 전달함

제16회 세계인의 날
TOGETHER DAY

한국생활 경험

양 아 원

국 적 대한민국

원국적 대만

저는 한국에 온 지 8년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기쁜 경험은 물론 힘든 경험까지, 많은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중 제가 한국에서 적응해야 했던 것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선 추운 날씨입니다. 저는 원래 더운 나라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한국 날씨가 저한테는 너무 추웠습니다. 정말 참기가 힘들었지만, 눈이 내렸을 때 왕 눈사람을 만드는 것은 참 재미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매운 음식입니다. 매운 음식은 아직 적응을 다 못했습니다. 한국에는 저에게 매운 음식이 많아서 항상 물로 씻어서 먹었습니다. 남편이 저와 아이들에게 한국에 있는 동안 매운 음식에 적응해야 한다고 말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하루는 추어탕을 파는 음식점에 갔는데 거기서 엄청 매운 추어탕을 먹었습니다. 그때 저와 아이들의 입에서는 마치 불이 나오는 것 같았고 얼굴은 바로 새빨갛게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추어탕이 너무나 매워서 못 먹겠다고 하니 남편은 "그럼 추어탕 먹을래 아니면 청양고추 먹을래?"라고 물었습니다. 청양고추를 잘 몰랐던 저는 아이들과 같이 청양고추를 선택해서 먹었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 너무 매워서 울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 웃음이 나오는 추억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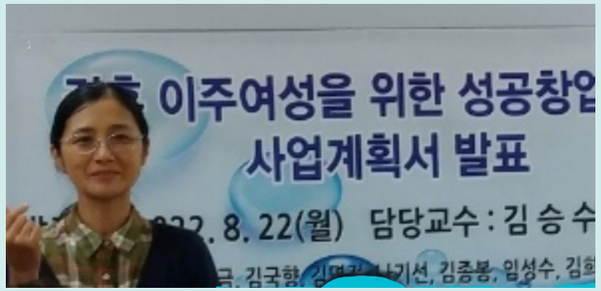
마지막으로는 언어입니다. 한국어는 앞에 말했던 두 가지 어려움보다 더 큰 도전이었습니다. 제 가족은 저와 아이들의 한국말 실력을 늘리기 위해 한국에서 여행이나 탐방을 많이 했습니다.

고성에서는 몽골에서 오는 독수리들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전주에서는 한옥마을에서 역사 탐방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보고 배우니 한국말 수준이 많이 늘었습니다.

심지어 운전면허도 독학으로 딸 정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혼자 열심히 책을 보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운전 연습을 했고, 학원에 가지도 않고 한 번에 장내 기능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또한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다문화센터에서 한국어 공부를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열심히 잘 가르쳐주셨고 그 결과 저는 한국어능력시험 4급을 한 번에 합격하고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과정도 통과했습니다.

이런 노력 끝에 국적을 취득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말로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동안 저를 많이 도와주신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 감사했고 그들이 저의 수호신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창업과정의 계획 발표 사진

이 외에도 다양한 경험을 계속해왔습니다. 창업에 관심이 있어서 새일센터에서 진행하는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성공 창업과정 사업계획서 발표」에 참석해 창업 관련

지식을 공부했습니다. 담당 선생님께서는 우리의 창업 계획서를 지도해주셨고, 가게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잘 가르쳐줬습니다. 정말 좋은 경험을 했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저는 대전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민원안내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국적을 취득했을 때 담당 직원에게 출입국사무소에서 봉사활동이 가능한지를 여쭤보자 이민통합지원센터로 연결해주셨습니다.

거기서는 제가 민원안내 봉사활동이 가능하다고 하여 2022년 11월부터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함께 봉사하는 친구들이 저에게 많이 알려주어 봉사하는 동안에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제 모국어인 중국어를 발휘해서 도와줄 수 있다는 사실이 매우 뿌듯했습니다. 한국어도 중국어도 못하는 외국인들을 도와주는 것도 정말 큰 행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영어 말하기 실력을 향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전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나 감사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국에서 앞으로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제16회 세계인의 날
TOGETHER DAY

계절근로자 문제는

제게 맡겨 주세요

아그니스 카푸테 코르푸즈

국 적 대한민국

원국적 필리핀

2002년 한국으로 시집 온 저는 3명의 자녀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2006년에는 한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2010년부터 5년 정도 홍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정 통번역과 상담 등을 하면서 홍천군 다문화가정 친구들을 위해 일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는 홍천군 농촌인력지원TF에서 계절근로자의 비자 발급 관련 업무와 한국 입국 후 외국인등록 업무 등을 맡고 있으며, 필리핀 계절근로자와 농업주 사이의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사진

홍천군의 계절근로자가 입국하면 SNS친구를 맺어 제게 언제든 연락하라고 합니다. 한국에 처음 온 친구들에게 '한국 음식은 맵다', '사장님 목소리 크다, 화난 거 아니다'라고 미리 알려주기도 합니다.

미리 알려주어도 "목소리 큰 농장주가 무섭다"고 말하는 계절근로자의 연락으로 농장을 방문했더니 의사소통이 안 돼서 생기는 사소한 문제였습니다. 서로의 생각을 통역해주자 쉽게 해소되었고, 그 근로자는 이제 농장주가 무섭지 않다고 환하게 웃으며 지냈었습니다.

어느 날은 "배가 아프다"는 계절근로자가 있었습니다. 복통과 심한 구토증상이 나타난 근로자를 빨리 춘천의 대학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근로자는 간농양 판정을 받았지만 9일간의 치료를 마치고 무사히 일터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월급이 이상해요"라고 연락도 자주 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통역해주세요"라는 연락은 더 자주 아무 때나 오기도 합니다. 근무 시간이 아닌 늦은 시간 심지어 새벽에도 계절근로자들의 연락이 많이 옵니다. 낯선 한국에서 의지할 사람이 '나'라는 걸 알기에 적극적으로 연락을 받아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계절근로자가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의 보건소와 격리시설 사이를 오가며 근로자들의 코로나19 검사와 입국 후 격리가 잘 이뤄지도록 노력했었습니다.

그리고 동생 3명이 계절근로자로 입국하여 한국에서 일을 하게 되어 행복했습니다. 동생들은 한국의 음식과 계절, 사람들이 너무 좋다며 만족해했고 12월 귀국 전에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보게 되어 행복하다고 했었습니다.

활동사진

홍천군은 2017년 81명, 2018년 321명, 2019년 354명, 2022년 534명의 계절근로자가 입국했었습니다. 나의 고향 필리핀의 친구들은 한 명의 이탈도 없이 무사히 일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2023년에도 홍천군에는 계절근로자들이 옵니다. 저는 계절근로자들이 한국의 관습에 익숙해져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계절근로자들이 한국의 현대 농법을 잘 배워 필리핀에 돌아가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활동사진

한국에서 행복을 누리자

한누리자

국 적 대한민국

원국적 키르기즈스탄

12년 전 친정엄마의 친구를 통해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다. 6개월의 기다림 끝에 비자를 받아 2011년 1월에 한국 땅을 밟았다. 낯선 이국땅에서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으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의 도움으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해졌다.

선생님이 우리 집을 방문하여 일대일 수업으로 한국어를 정성껏 가르쳐주신 덕분에 한국어능력시험 2급에 합격하였고 곧이어 운전면허증도 취득할 수 있었다. 2011년 당시 춘천에는 나와 같은 국적의 결혼이민자는 없었고 강원도 횡성과 태백, 고성에 사는 4명이 전부였다.

다문화 축제에서 이들을 만나 너무 기뻤고 횡성에 사는 결혼이민자와는 아직까지 연락을 하며 잘 지내고 있다. 조국 사람이 아니더라도 카자흐스탄처럼 옛 소련연방국가에 속했던 국가면 공식 언어가 러시아어이기 때문에 선배 결혼이민자들로부터 러시아어로 의사소통하며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많이 받았다.

가족사진

육아사진

유산의 아픔을 두 번 겪은 후 2013년 건강한 딸이 태어났다. 춘천 시댁에서 출산을 하였고 시댁 아파트 단지 내 또래 아이들의 한국 엄마들과 사귀면서 육아에 도움을 많이 받았다.

육아문제로 다문화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었지만, 육아를 통해 오히려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한국어를 더 잘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딸이 태어난 후에 본격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귀화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였고 2014년에 드디어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딸의 이름은 친정엄마가 지어주셨다.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자유로워지자 한국 요리를 배우고 싶어 2017년에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일곱 차례나 필기시험을 볼 정도로 겨우 합격을 하였지만 실기시험은 본국에서 요리전공을 한 덕분에 쉽게 합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육아문제로 경력을 쌓진 못하고 있다.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 딸의 학교 수업도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되는 바람에 자녀 옆에서 온라인 수업을 지도해주어야만 했다.

못내 아쉬웠지만 뜻밖에 행운이 찾아왔다. 강원도 교육청에서 통번역사를 위촉하는 제안이 왔던 것이었다. 학교 선생님과 다문화가족 학부모 및 학생들의 소통을 이어주는 역할을 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학교에서 러시아어 통번역 활동은 여러 가지 경험을 쌓을 수 있어서 무척 유익했다. 이후 2020년에 경찰서에서 통역 자원봉사를 하고 2021년에는 다문화센터 러시아어 통번역일까지 맡아서 지금까지 즐겁게 일하고 있다.

강원도 교육청 통번역 위촉식

현재는 춘천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민원실에서 일주일에 세 번 민원 안내 도우미 활동을 하고 있다. 러시아어 통번역 활동으로 결혼이민자들뿐만 아니라 국내 통번역사들과 교류하면서 직장인 엄마이자 가정의 엄마로서 열심히 한국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어요!

수미야 문크바야르
SUMIYA MUNKHBAYAR

국 적 몽골

제 이야기를 시작하자면, 먼저 한국인인 남편과의 만남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남편은 3년 정도 몽골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고, 그때 저 역시 사회활동을 활기차게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몽골에서는 다소 늦은 나이인 29세. 친구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결혼 생각이 없었던 제가 어느새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있더군요.

그게 2003년이었습니다. 사실, 남편은 결혼 후 몽골에서 살겠다고 했었기에 한국행은 생각해보지도 않았었지요. 남편의 설득으로 한국에 와서 결혼생활을 시작하긴 했지만, 해보지 않았던 타국의 삶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우선 언어가 되지 않아, 서른이 훌쩍 넘은 제가 바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제게 남편은 한국어 공부를 할 수 있게 용기도 주고 정보도 많이 찾아봐주고 했습니다. 2003년에는 현재의 다문화센터 등이 거의 전무한 때였습니다. 현재의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때였죠.

지금도 그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입국 초기에 좀 더 체계적으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가 둘인데, 첫 아이와 초등학교 교재로 함께 집에서 공부했습니다.

엄마가 한국어가 서투니 첫째 아이는 한국어를 늦게 깨우쳤습니다. 그렇게 첫째를 키우며 둘째를 업고 (당시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이 없었을 때라) 여성인력개발센터라는 곳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거기에서 이주 여성들이 모여서 하루에 2시간씩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이것도 사실

교실이 마련되었던 것이 아니고, 사용하지 않는 어린이집 교실 공간 한쪽을 수업 공간으로 사용했었습니다.

그 후 2007년. 여수시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개소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때부터 수업교재가 생기고, 시험을 봐서 수준별로 수업도 하게 되었습니다. 다문화센터가 확대되고, 2009년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생기면서, 저는 사회통합프로그램 1기 졸업생이 되었습니다.

2011년부터는 두 아이가 학교에 들어갔고, 저는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역시 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자료를 내가 만들고, 교수법도 익히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고, 이들이 낳은 아이들이 한국에서 위화감 없이 어울려 살 수 있는 방법의 그 첫째가 (엄마의)한국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상 주위 결혼 이주 여성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엄마가 알아야 아이를 키운다. 우리 다문화자녀 아이들은 너무나 재능이 많아 한국에서 적응만 잘하면 오히려 우리 아이들이 선두그룹에 있을 수 있다."

제 둘째 아이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위에서 말한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스포츠댄스를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다문화 학생 재능을 키워주는 사업이 실시되었거든요. 당시 아이는 1년을 거기서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을 들었고, 재능이 있다는 강사님 말씀에 학원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아이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스포츠댄스 선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지금 제 둘째 딸은 한국 국가대표를 목표로 스포츠댄스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올해에는 한국체육협회에 선수로 등록하여 10월에 있을 전국체전을 준비 중입니다.

저는 지금도 결혼 이주 여성들이 한국에 처음 와서 예전의 나 같은 좌절감을 느끼지 않게 백방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움을 좀 더 체계적으로 주기 위해서는 '다문화사회에 대해 내가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늦은 나이지만 다문화복지학과 전공도 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입국했던 20년 전과,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던 10년 전이랑 많이 달라진 시대입니다. 한국 아이들은 다문화수업을 어렸을 때부터 받으며 커 오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인에 대한 차별 등을 하지 않고, 외국인들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직 어른들의 인식과 차가운 눈은 조금 가슴이 아프지만요.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이 되었을 때는 다문화란 말 자체가 굳이 필요 없어진, 모두가 어울려 잘 살아가는 한국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무엇을 가르치느냐,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아이들은 천차만별로 자라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누가 물어보면 목표는 하나입니다.

'외국인이라고 소극적일 필요는 없다. 엄마는 누구보다도 강하다. 우리 아이들을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키우기 위해 엄마가 배워야 한다. 우리 아이들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제 힘이 닿는 데까지 저는 결혼 이주 여성들과 그 아이들을 위해 배우고 노력할 것입니다.

자원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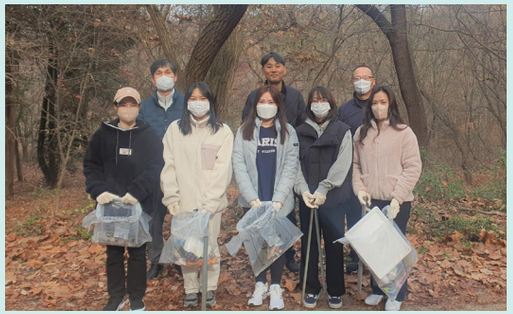
어렵지 않아요.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이민자 네트워크

낙엽이 떨어지고 제법 쌀쌀한 바람이 불기 시작한 어느 가을날.

이민자 네트워크 회원들과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던 중, 뉴스 기사에 나온 법무부 이민자 멘토단의 플로깅* 활동에 대해 보게 되었습니다.

플로깅 : 이삭을 줍는다는 뜻의 스웨덴어 plocka upp과 영어 단어 jogging이 합쳐진 합성어로, 쓰레기를 주우며 조깅하는 환경 정화 운동을 말함



"옳지! 우리도 우리 주변 환경부터 돌아보면 어떨까요?"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도 한번 해봐요."
"건강도 챙기고 자연도 보호할 수 있으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마침 사무소 뒤편으로 지역 주민들이 사랑하는 건지산과 오송제가 있으니 언제든 시작하자고 다들 한목소리로 찬성했습니다.

준비할 거라고는 튼튼한 두 다리와 마음만 있으면 되니 지금 당장 출발한다고 해도 모두들 따라나설 기세였지요.

그리하여 유난히 하늘이 파랗던 가을날, 전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과장님과 직원들, 결혼이민자 및 유학생들로 구성된 이민자 네트워크 회원들과 같이 플로깅 활동을 하기 위해 건지산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도시락 대신 집게와 쓰레기봉투를 들고 있었지만 마치 가을 소풍이라도 가는 듯 발걸음은 가벼웠답니다.

드디어 건지산 입구 도착! 건지산을 시작으로 편백나무 숲을 거쳐 오송제 주변 일대까지 돌면서 환경 정화 활동을 하는게 오늘의 목표였지요.

"가을산도 만끽하시고 쓰레기 봉투도 가득 채워봅시다"

이 말과 동시에 본격적인 플로깅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도란도란 그동안 못 나눴던 얘기도 나누고 낙엽 밟는 소리도 즐기다 보니 쓰레기 봉투는 점점 더 그 부피를 더해갔고, 실천하는 우리 마음은 그것보다 더 크게 두둥실 부풀어 올랐습니다.

"좋은 일 하시네요"
"어디서 오셨어요? 외국인 분들이네?"
"이렇게 멋진 활동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집게가 더 있으면 저도 같이 하고 싶네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걸음을 멈추고 격려의 말을 한마디씩 해주셨습니다. 대단한 일도 아닌데 칭찬을 받으니 쑥스럽기도 했지만 뿌듯한 마음 또한 숨길 수 없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이민자 네트워크 회원분들과의 만남도 쉽지 않았는데 오랜만에 같이 야외 활동을 하니 더욱 신이 나기도 했지요.

물론 산을 오르느라 힘들기도 하고 점점 무거워져 가는 쓰레기봉투 때문에 지치기도 했지만 모두 힘든 내색 없이 자연 보호 활동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법 쌀쌀한 가을 날씨였지만 우리들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넓은 편백나무 숲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오랜만에 맑은 공기도 한껏 마셨지요.

딱따구리 소리를 들으며 자연 속에 앉아있으니 내가 곧 자연이 된 것 같은 기분마저 들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중한 자연을 더욱 지켜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플로깅이라는걸 처음 해봤는데 정말 좋은 활동인 것 같아요."
"플로깅 데이를 만들어서 종종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혼자서는 못 했을 텐데 다른 분들과 같이하니 즐겁게 할 수 있었어요."

어렵지 않으니 자주 이런 활동을 하자고 먼저 말씀해주시는 정말 멋진 우리 이민자 네트워크 회원분들!!

자원봉사라고 하면 막연하게만 느껴지고 혼자서 하기엔 힘들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작은 힘으로 우리 주변부터 소소하게 바꾸어 나간다고 생각해보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닐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첫걸음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선 첫걸음을 내딛으면 그 다음 걸음은 훨씬 쉬워지고 다음엔 달리기도 할 수 있지요.

우리 모두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손을 잡고 첫걸음을 내딛으면 어떨까요?
전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이민자 네트워크에서 같이 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꽃 피는 봄이 오길

LE THI ANH NGUYET

국 적 베트남

신랑과의 인연 그리고 한국으로 이주

나는 7년 전부터 한국 음악과 한국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기회가 되면 한국어를 배우고 싶었다. 그래서 베트남 호찌민시 인문사회과학대학교 한국학과에 편입 후 한국어를 본격적으로 접하게 되었다.

한국어에 대한 욕심이 생기자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한국인 원어민을 찾게 되었고 덕분에 지금의 신랑을 알게 되어 약 4년의 연애를 통해 결혼까지 결정하게 되었다.

다만 한국으로의 이민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베트남에서 결혼생활을 하게 될 줄 알았던 내게, 당시 남자친구였던 신랑은 한국에서 직장을 구해야겠다며 한국에서의 생활을 조심스럽게 권했고 그렇게 나의 한국행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졌다.

그렇게 작년 벚꽃이 떨어지던 어느 봄날 나는 한국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

호찌민은 일 년 내내 여름 날씨였기 때문에 한국의 봄은 나에게 겨울이나 다름이 없었고 덕분에 두꺼운 옷과 패딩으로 한국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예쁘게 흩날리는 벚꽃이 나의 시작을 응원해주는 것만 같았다.

진안에서 만난 내 인생의 길잡이

한국에 와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지 못했던 나에게 진안군 가족센터는 사막의 오아시스와도 같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의 첫 멘토 언니를 만나게 되었다.

언니는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나를 친동생처럼 잘 대해주었고, 이민자로서 느끼는 어려움을 함께 고민해 주었다. 마음 터놓을 곳 없던 나에게 언니는 늘 힘이 되는 가족 같은 존재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프리랜서로 통역사 활동을 하고 있는 언니의 모습이 내게는 아주 크게 다가왔다. 가족센터, 경찰서, 사법기관 등 여러 한국 기관에서 통역활동을 하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존경스럽고 부럽기만 했다.

처음 한국어를 하나도 모르는 상황에서 한국에 정착 후 어엿한 사회인으로서 우뚝 선 언니를 보며 나도 그 길을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나는 무턱대고 공부를 시작하였다. 언니는 내가 포기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주었다. 중간중간 힘이 들고 스스로에게 의심이 들 때 해준 그 말을 아직도 기억한다.

"응우엣아~ 누구에게나 처음은 힘든 법이야, 하지만 너는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어"

우물 같은 존재 가족센터

나는 가족센터에서 다양한 교육 지원을 많이 받았다. 앞으로 한국 회사에 취업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ITQ 한글과 엑셀 과정에 참여했고 자격증을 취득했다.

또한 한국어를 전공했고 토픽 5급도 취득했지만, 한국에서 나의 능력을 증명하고 여러 활동을 하기 위해서 토픽 6급 취득이 절실했다. 그때 참여한 수업이 가족센터 토픽쓰기반이었고 마치 학교에 다니듯이 약 3개월의 수업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꾸준히 참석했다.

수업을 듣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것보다도 낯선 곳에서 아는 사람 한 명 없이 외롭게

생활하던 내가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감사했고 소중했다. 이곳에서 여러 나라의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고 서로의 경험과 고민을 공유하며 어려운 한국 적응기를 잘 이겨낼 수 있었다.

여러분들도 지금 밖으로 나와 우물가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대화하고 소통하며 함께하길 바란다.

전주출입국 자원봉사

전문 통역사를 꿈꾸다

점점 한국생활에 적응하면서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통역사로 활동하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다. 신랑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통역 인증 제도를 알게 되었으며 2022년 말에 법무부가 주관한 난민 전문 통역 인증 시험과 대법원이 진행한 법정 통·번역인 인증 시험을 보게 되었다. 법률 지식에 대한 필기, 대화 통역, 순차 통역, 시역 등의 시험 과정을 준비하여 운 좋게 통과할 수 있었고, 2023년 초에 난민전문통역인 위촉장과 법원 인증 통·번역인 인증서를 받았다.

특히 법무부 인증 난민전문통역인 위촉식에 초대받아 존경하는 통·번역 교수님과 전문 통역사 선배들을 만나게 되는 뜻깊은 날도 있었다. 앞으로 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많은

사람들을 돕는 전문 통역사가 되는 게 나의 꿈이다.

난민전문통역인 위촉 사진

난민전문통역인 위촉 사진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봉사와 감사를 배우다

귀화 준비를 위해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러한 인연으로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이민자 네트워크 활동 및 민원실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공부만 하고 한국 사회 경험이 없던 나에게 이러한 봉사활동은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 출입국을 찾은 민원인들에게 신청서 작성 방법을 안내해 주고 그들이 이 업무를 편하게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이었다.

가장 좋았던 부분은 많은 한국인들을 만나 다양한 말투와 발음 그리고 억양을 듣고 내가 연습한 걸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말하는 데 자신감도 생겼고 비자 업무에 대한 정보가

익숙해지면서 내가 여기서 간접적으로 사회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마음에 뿌듯함을 느꼈다. 지금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7개월의 봉사활동을 생각하면 오히려 내가 베푼 것보다 도움받은 게 더 많은 것 같다는 감사한 생각이 든다.

전주출입국 자원봉사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이민자 분들이 낯선 한국에 와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한국 속담에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지금은 힘들어도 항상 긍정적인 마음과 희망을 잃지 않으면 여러분에게도 꽃 피는 봄날이 올 것이다.

제16회 세계인의 날
TOGETHER DAY

내가 사랑한 일

임 주 희 (한국어강사)

국 적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거제시 가족센터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임주희입니다. 저는 2012년 5월 사회통합프로그램 첫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주로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며 한국에 대해 알아가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점차 이 프로그램이 결혼이민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들 모두가 한국어, 한국 사회를 공부할 수 있으면서 체류자격 변경 시 큰 혜택을 보는 과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이 무엇인지 모르던 10여 년 전에 진주 교육대학교에서 다문화 전문가 과정이라는 강좌가 개설된 공고를 보고 신청했습니다. 거제에서 1시간 30분 동안 운전을 해가며 몇 달을 토요일, 일요일 강의를 들으면서 다문화 전문가라는 과정을 이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이민자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다문화센터 지도사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사회통합프로그램이 결혼이민자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인들에게도 한국어 교육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향으로 한국을 알려줄 수 있는 법적 테두리 안의 교육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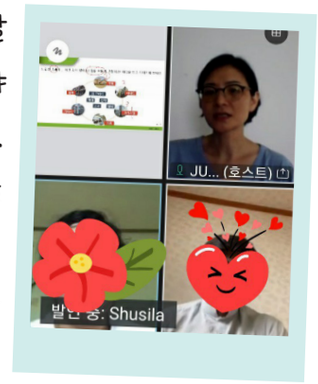
저는 오랜 기간 한국어 강사로 활동하면서, 한국이라는 곳에서 살며 한국말을 하고는 있지만, 한국 사회, 법, 역사, 질서, 지리 등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 관심조차 없는 외국인들이 많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시작은 이들에게 한국을 알릴 수 있는 새로운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들을 가르쳐야 하는 저 또한 공부하게 만드는 길이었습니다.

아들의 고등학교 지리책을 꺼내서 한국의 지형과 지리를 보고 동서남북 각 지형의 특징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고, 역사책을 보면서 제가 학교에 다닐 때는 그렇게 안 외워지던 역사적 사실이 발생한 연도와 그 내용 등을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출입국 관련법이나 외국인들의 체류자격 관련 등에 대해서는 인터넷이나 행정사 등을 통해 알아갔고, 외국인들이 비자 문제로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가야 할 일이 있으면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같이 가서 체류자격부여 절차 등에 대해 귀동냥하며 익혔습니다. 저는 농담으로 '이렇게 공부했으면 서울대 갔을 거야' 하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제 개인의 힘만으로 이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주위 결혼 이민자들에게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알리고, 참여하도록 설득하는 데 큰 노력이 들었습니다.



먼저 사전평가라는 과정을 거쳐야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데 사전평가를 치기 위해서 거제에서 진주까지 가야 하는 것이 10여 년 전에는 꺼려지고 불편했던 일이었습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자기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시간을 내주어 동행해주기도 했지만, 어떤 가정에서는 타지역까지 가서 평가받는다는 것에 대해 남편이 부정적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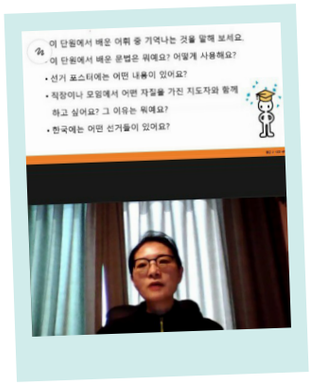
그 당시 저는 시내 운전만 하고 다녔고, 시외 운전에 대한 큰 부담을 가졌던 상황임에도 큰 용기를 내어 결혼이민자들을 제 차에 태우고 사전평가를 보러 간 기억도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위험하고 무모했던 것 같습니다. 제 작은 차에 아이도 타고 임신한 임산부도 타고 갔었는데 이런 행동도 초창기에 열의가 가득했을 때나 가능한 무모한 행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이민자들을 태우고 다니면서 추억담이 엄청 많은데 가장 아찔했던 기억은 한

결혼이민자를 내려주기 위해 갓길에 비상등을 켜고 잠깐 정차했을 때였습니다. 갓길 쪽으로 오토바이가 쑥하고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뒷좌석 차 문이 열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민자에게 열어도 된다고 말하려는 찰나에 오토바이가 지나갔고 저의 지시를 듣지도 않고 차 문을 열어버리는 상황이 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오토바이가 지나간 후에 차 문이 열렸으니 사고를 면했지 아차 하는 순간 큰 사고가 날 뻔해서 그 후로 차에 사람을 태우고 다닐 때 더욱 주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시간이 흘러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알게 된 우리 지역의 외국인들이 결혼이민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나 유학생 등으로 늘어났습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체류자격을 변경할 때도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며, 몇몇 근로자들에게 사전평가를 보게 하기 위한 정보제공 모임의 자리를 만들려고 했는데 60여 명의 근로자가 자신들도 참여하고 싶다며 찾아왔습니다. 간단하게 시작하려고 했는데 큰 이벤트가 된 것입니다.



60여 명의 근로자들이 사전평가 신청을 하는데 거제지역에서도 사전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출입국에서 배려해주었습니다. 저희가 신청한 60여 명 말고도 개인 접수까지 합하면 신청 인원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거제에서도 사전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같았습니다.

평가 장소를 찾지 못해서 제가 지인 찬스를 사용해 아들의 모교에 대관을 부탁하여 사전평가를 멀리 시외로 나가지 않고 거제 관내에서 칠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가끔 외국인들이 "거제에서 시험 없어요?"라는 질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은 초창기의 아찔한 에피소드들은 없지만 제가 그런 다양한 경험을 한 덕분에 여러 분야에 있는 외국인들을 만나서 수업을 할 수 있고 그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줄 수 있는 다문화 전문가가 되었다는 것이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지금도 그들과 수업하고 상담을 하면 내가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는 뿌듯함에 아팠던 다리도 지끈지끈했던 머리도 낫는 걸 보면 사회통합에 대한 제 애정이 과할 정도로 각별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그들에게 제가 가진 애정을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베트남계 한국인 김태희!

이제는 다문화가족센터

사례관리사

김 태 희

국 적 대한민국

원국적 베트남

베트남계 한국인 김태희, 열정 넘치는 다문화 사례관리사

제 이름은 김태희. 베트남계 한국인으로 세 아이의 엄마, 사랑받는 아내, 시어머님으로부터 격려와 지원을 받는 행복한 며느리입니다.

베트남 북부 항구도시 하이퐁에서 자란 저는 2010년 한국에 와서 김태희라는 두 번째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큰 기쁨"이라는 태희라는 이름에 완벽히 적응할 만큼 세월은 빠르게 흘러 한국에 온 지도 벌써 14년. 지금 저는 어느새 다문화가족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발로 뛰며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다니는 "사례관리사"가 되었습니다.

가족사진

다문화 강의 사진

올해로 한국 생활 15년 차를 맞이한 저는 2017년, 4년제 사이버대학교에 입학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5학년, 중학교 1학년인 세 딸들에게 다른 다문화가족들을 위해 활약하는 자랑스런 엄마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베트남에서 '공업전문대'를 졸업한 제가 사회복지 공부를 결심한 건 가족센터를 이용하며 리더활동을 해본 경험 덕분이었습니다. 다문화가족서포터즈, 베트남어 통번역지원사 등으로 활동하며 김포에 사는 베트남 이주여성들에게 통역을 해주고, 출입국사무소에서 외국인들 상대로 체류자격별 비자신청 및 외국인근로 상담 등에 도움을 주어 왔습니다.

하지만 꿈에 그리던 사회복지사가 막상 나의 직업이 되면 사정은 다른 법입니다. 끝없는 사례회의, 계속되는 후원품 배분, 가계도는 왜 그려도 그려도 헷갈리는지... 아이들 양육과 집안일하는 시간 빼놓고 꼬박 복지업무에 매달렸지만, 대상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단순 봉사활동 이상의 어려움이 느껴지곤 했습니다.

다문화 강의 사진

어려운 다문화가족을 돕기 위해 연계기관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센터장님께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지 여쭤보는 등 직접 부딪쳐가며 일을 배웠습니다. 한국어능력시험 4급을 취득하고 대학원생이 된 지금까지 한 번 시도해서 안 되면 두 번 도전하고 세 번 도전하고,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한발씩 꿈에 다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대학원에 진학해 사회복지, 다문화학을 더 공부하고 있습니다. 배움은 저 자신도 행복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길입니다.

김포시가족센터(구 김포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입사한 지도 7년, 그 사이 저는 사례관리사로서, 다문화이해교육 전문가로서 복지전문가로서의 삶에 익숙해졌습니다. 통역을 직접 할 수 있는 장점을 살려 제가 사례관리를 하는 가정의 수가 제법 많은 편이라 타 센터에서 저를 벤치마킹하러 오기도 합니다.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미취학 아동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생 누구든 저와 함께라면 "베트남에 다녀온 느낌이 든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다문화 강의를 혼이 쏙 빠지게 하곤 합니다.

다문화 강의 사진

저는 만족도 조사결과에서 "김태희 사회복지사에게 정말 감사하다" 라는 말이 나오면 정말 뿌듯합니다. 이렇게 꿈을 이룬 저 김태희의 이야기는 경기도 기예경진대회 이주여성 백일장에서 꽃이 펴 도지사상 수상을 하는 결실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가족사진

천방지축 하이퐁 처녀~ 맏며느리 김포댁 되다.

사실 복지를 전공할 것이라 상상해보지 못했지만, 사회복지가 저에게 마냥 낯설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베트남에서 2남 1녀의 막내딸입니다. 제 아버지는 베트남 전쟁 때 총탄에 맞아 평생을 누워계시다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친 오빠는 결혼 후 장애가 있는 조카를 출산해 아버지의 병원비를 보태줄 형편이 안 되었고, 저는 한국에 가면 더 좋은 직업을 얻어 가족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철없는 막내딸이었지만 어렸을 때부터 간병과 돌봄에 익숙했습니다. 사회복지사로서 남을 돕는 일이 힘들 법도 한데, 주변을 먼저 살피는 게 익숙한 저에게 어린 시절 경험이 여러모로 큰 자양분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몸이 불편한 남편의 겉모습도 편견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기술학교 교수로서 전문성을 갖추고 예의 바른 사람입니다. 이런 남편을 만났을 때 동반자를 만난 느낌이 들어 맏며느리 김포댁이 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남편은 3남 1녀 중 장남이고, 저는 결혼과 동시에 시부모님을 모셔왔습니다. 치매가 있으셨던 시아버지는 10년 동안 가족의 간병을 받다가 3년 전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는 베트남 전쟁의 부상 후유증으로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넉 달이 채 되지 않았을 때로, 시아버지를 간병하는 저를 많이들 걱정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간병용품이 얼마나 잘 나오는데요.
세상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이제 시아버지 한 분뿐이에요."

제 마음과는 달리 아버님은 저에게 많은 추억을 남기고 결국 세상을 떠나가셨지만 말입니다. 아버님이 떠나가신 후 제가 사회복지 실습을 노인복지기관에서 하게 된 것은 그때의 영향이 컸습니다.

한국에서 맏며느리인 저는 띠동갑 이상 연상인 손아랫동서들과 함께 일 년에 여러 번 되는 제사상을 준비합니다. 집안 경조사에 척척인 맏며느리인 저도 이 역할들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남편 그리고 저에게 기대가 커 엄하셨던 시어머니는 이제 제 '인생 스승님'이시며 친딸처럼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지원군입니다. 시어머님은 종교활동을 하시며 봉사활동에도 관심이 많으신 덕분에 제가 눈이 빨리 깨일 수 있었고 덕분에 제가 김포의 여성일꾼으로 자리잡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함께라서 더 소중한 가족, 가족전문가 김태희

"엄마는 정말 멋져. 난 엄마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사춘기에 접어든 큰딸의 학교에서 다문화 강의를 하고 온 날. 무뚝뚝하던 딸의 잊을 수 없는 한마디입니다. 엄마라서 더 강하다고 저를 소개하는데, 이런 제 버팀목은 가족입니다. 보물 같은 세 딸을 생각하며 저는 더 열심히 노력합니다. 제가 노력할수록 아이들이 더 많이 보고 배우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입니다.

이주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기도, 힘든 일을 겪기도 했지만, 사랑하는 아이들을 생각하며 더 노력했습니다. 다문화이해 교육을 열심히 하는 것도 제 아이들이 자랐을 때 다문화가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다양한 다문화가족이 늘어나고 있는데, 다문화 정책도 더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제 이름의 뜻처럼 '가장 큰 기쁨'이 되어 한국과 베트남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읽어보신 여러분! 결혼이주 여성분들은 당연히 저와 같은 문제! 어려움을 겪을 테지만, 우리가 항상 자기계발을 위해 노력하고 열심히 산다면 언젠가는 모두 성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더 좋은 사회, 더 살기 좋은 사회, 편견과 불평등이 없는 사회를 위하여 저, 베트남계 한국인 김태희는 오늘도 달립니다.

감사합니다. 깜언

다문화 강의 사진

제16회 세계인의 날
TOGETHER DAY